

3-25-2000

##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Hyung Kook Kim 김형국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형국,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0.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CHURCH GROWTH THROUGH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written by

**HYUNG KOOK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Ho Jin Jun

---

Moon Sang Kwon

---

Seyoon Kim

March 25, 2000

**CHURCH GROWTH THROUGH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YUNG KOOK KIM**

MARCH 2000

지역 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를 통한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전호진 교수

김 형 국

2000년 3월

ABSTRACT  
CHURCH GROWTH THROUGH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Hyung Kook Kim

Doctor of Ministry

2000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examine how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influences church growth. This paper is an attempt to make sense of missionary strategies and practical plans based on theological foundation; in order to find the possibility of church growth through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Especially, Hayang area in Gyung-sang Buk-do will be a model in this paper. Nowadays, this area is rapidly urbanizing with a deep need and concern for high educa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Following an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amines a biblical foundation about the city. The Bible says about many cities and explains how God saved His people through the cities. Chapter 3 discusses theolog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ministry in the city. Chapter 4 deals with mission strategies and problems of the church in the urbanizing area. Chapter 5 surveys general methods of missionary service in the community. Chapters 6 and 7 deal with applicable programs and their evaluation.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ry research and field research.

Theological Mentor : Ho Jin Jun, D.Miss  
Jeong Kii Min, Ph.D.  
Seyoon Kim, Ph.D.

## 감사의 말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번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데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복음의 정확한 조명을 통해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신 김세운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전호진 박사님과 논문의 구조를 잡아주시고 방향을 설정하여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회성공을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하시며 아들의 학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물질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 김주식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용기를 주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내조해준 아내 박명숙 사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아빠의 배움을 기뻐하며 옆에서 도와준 아들 은규와 딸 은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잊지 않고 목회를 잘 하라고 가르쳐주신 교수 목사님들, 특별히 대구 수산교회 담임목사이신 조현식 목사님 내외분, 대구 감삼교회 이종근 목사님 내외분, 대구 대광교회 이강국 목사님 내외분, 대구 서광교회 이덕희 목사님 내외분, 대구 노원 교회 박태동 목사님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학교관계자 김태석 부원장과 직원들, 하양교회 부교역자들과 사무실 이현주 양과 그동안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양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목회 하면서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열심히 목회하려 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6월 김 형 국

# 목 차

ABSTRACT-----	ii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성경적 도시목회론-----	5
제 1 절 도시목회를 위한 성경적 고찰-----	5
1. 구약에서의 도시-----	5
2. 신약에서의 도시-----	9
3. 바울의 선교동기-----	11
제 2 절 도시선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4
1. 초대교회 시대의 도시-----	14
2. 중세의 도시-----	14
3. 종교개혁과 근세의 도시-----	16
4. 현대의 도시-----	17
5. 한국교회와 도시사회 봉사-----	19
제 3 장 현대의 도시화와 지역교회의 선교방법-----	24
제 1 절 도시화와 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고찰-----	24
1. 도시화의 경향과 세계-----	24
2. 도시화에 따른 목회의 현장-----	30
3. 도시화의 현상과 목회의 문제점-----	32

가. 경제적인 문제점-----	33
나. 사회적인 문제점-----	36
다. 문화적인 문제점-----	40
라. 목회적인 문제점-----	42
4. 신흥 거주지역의 현황-----	43
가. 신흥 거주지역 개념-----	43
나. 신흥 거주지역 유형-----	44
5. 도시화와 선교-----	45
가. 도시화와 선교방법론-----	45
나. 지역교회와 도시복음화-----	47
제 4 장 도시지역 사회의 선교방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연구-----	56
제 1 절 선교와 봉사에 대한 연구-----	56
1.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56
가. 에큐메니칼 선교와 현대의 복음주의 선교-----	58
나. 선교적 봉사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61
다. 선교적 봉사방법-----	66
제 5 장 하양교회 지역사회 선교적 봉사-----	71
제 1 절 하양교회 주변상황-----	71
1. 하양교회의 역사-----	73
2. 하양교회의 목회분석-----	75
가. 교역자의 문제-----	75
나. 평신도지도자의 부족-----	75
다. 상호신뢰감 상실과 친교의 결핍-----	75
라. 성령의 결핍-----	76
제 6 장 하양교회 선교적 방법에 관한 연구-----	77
제 1 절 지역복음화를 위한 목회사업-----	77
1. 계획적인 목회시도-----	78



2. 목회실천 프로그램-----	80
제 2 절 지역복음화를 위한 중점사업-----	84
1. 노인대학 운영-----	84
가. 노인목회에 대한 제안-----	86
나. 교회의 활동방안-----	89
다. 주일학교 노년부-----	90
라. 하양교회의 노인대학 사역-----	91
제 7 장 결 론-----	98
참고문헌 -----	102
VITA-----	106

## 도 표 목 차

도표 1 하양지역의 위치-----	3
도표 2 도시와 농촌의 차이-----	17
도표 3 1970-2025년 도시지역에서 사는 인구비율과 도시인구-----	26
도표 4 1950-2000년에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들의 지역별 분포-----	27
도표 5 경산시 행정지역 분포-----	72
도표 6 인구증가율-----	72
도표 7 경산지역 주요산업 분포도-----	73

# 그림 목 차

그림 1 경산시 하양의 지리적 위치-----7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사회적 제 현상을 전반적으로 대두시켰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시도는 변칙적 발전을 촉진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일정기간에 일정한 양이 일정한 방법으로 자라난 성숙의 경향이 아니고 오히려 양적 비대현상을 초래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문명은 낙후되고 물질문명만이 앞서게 되어 물질의 양은, 곧 인격의 양과 비례하여 해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역시 사회의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 선교사상 한국교회는 100주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어 세계 선교사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sup>1)</sup> 문제는 대부분이 물량주의적 성장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할 새로운 자세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괄목할 만한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이 제각기 진단되었고 그 요인은 주로 종교적 요인, 영적 요인, 신학적 요인, 선교전략적 요인, 신앙적 요인, 토착화 원리, 사회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별되어 연구되어 왔다.<sup>2)</sup>

라토렛도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으로 “선교사의 열정, 비기독교종교의 약화, 정치적 불안감에서 오는 절망감, 민족주의, 더 좋은 문화에 대한 동경”이라고 지적했다.<sup>3)</sup>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현상(urbanization)이다. 이는 곧 한국의 도시화가 동시대의 선교적 도전이고, 더이상 간과

1) Herbert Kane, 기독교 세계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93, 261.

2) 전호진,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71-291.

3) K. Latour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6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0), 430.

할 수 없는 목회적 요구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특히 필자는 필자의 교회가 처한 지역 사회를 도시화로 간주하고 도시론 차원에서 교회성장론을 시도하려 한다.

현대 한국사회는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다. 우리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도시이므로 먼저 도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류문명에서 도시는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도시란 무엇인가? 일부 도시사회학자들은 인류문명이, 곧 도시발전사라고 결론을 내릴 만큼 문명이 곧 도시화라고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초기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동일한 혈연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였지만 생활의 편의와 방어를 위하여 도시를 발전시켰다. 토인비는 인류문명은 작은 도시에서 수도중심의 비교적 큰 도시로 그 다음은 거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미래는 온 세계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것을 그는 에큐메노폴리스(ecumenopolis: 세계도시)라고 하였다.<sup>4)</sup>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의 도시화라는 사회학적인 요인이 한국교회 성장과 밀접하게 맞물려 왔으므로 지금도 도시화현상과 목회적 처지의 연관성은 더욱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도시목회적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sup>5)</sup>

특히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인근의 대구와 경산, 그리고 하양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전용주거지화하여 급속한 신흥주거지로 개발되고 있다.<sup>6)</sup> 하양지역이 속해 있는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영천시와 청도군이,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수성구와 달성군이 접해 있다. 경산은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서울에서 기차와 승용차로 약 3시간 반, 부산까지는 1시간 반 가량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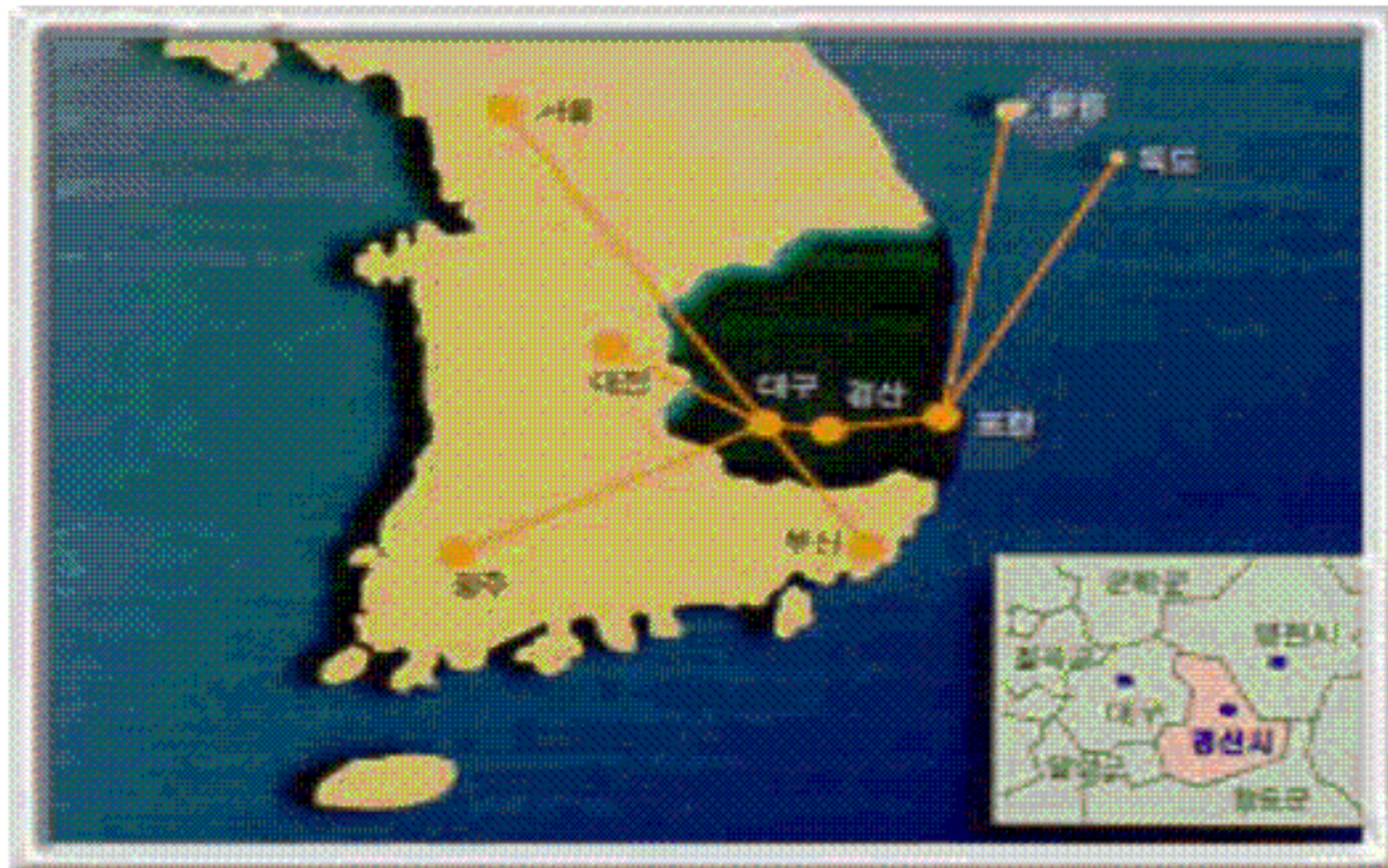
특히 경산은 11개 대학, 105개의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학원·연구도시이며, 또한 1,30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해 있어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신흥교육산업도시이다.

4) 신세원, "한국교회의 도시선교론," [한국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저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112.

5) M. Diehper, 도시교회 목회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3, 23-27.

6) 참고.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kyongsan.kyongbuk.kr/index1.htm>

〈표 1〉 하양지역의 위치



동경 128° 58' - 128° 41'  
북위 35° 59' - 35° 42'

이로 인해 농촌이면서도 도시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농촌지역이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많은 개발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도 여기에 맞추어 새로이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계획된 목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인 교회성장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1: 하양지역의 위치)7).

필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대구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현재 교회의 역사는 92년으로 1909년 5월 9일에 창립된 교회이다. 장로 16인에 제직 336명, 그리고 부교역자 6명이 섬기고 있는 중대형교회에 속한다. 역사는 길지만 아직 역사에 걸맞는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감당해 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 많은 요구가 지역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새로운 목회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

7) <http://kyongsan.kyongbuk.kr/index1.htm/>

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오래된 신자들의 고정적인 출석은 교회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변화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농촌이었다가 인근의 택지개발로 점점 도시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도전을 잘 대처하면 교회가 급성장할 것이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내지 못하면 현상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또 종교적으로 전통적 불교가 강하며 유교적인 경향성도 타 지역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므로 선교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복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현실에 근거하여 신흥도시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를 통한 교회성장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목회신학의 정립과 그에 준한 목회적인 전략, 실천방안 등을 추구하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전체 7장에 이른다. 먼저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도시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다루었다. 성경은 이미 많은 도시를 언급하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준다. 3장은 도시목회를 위한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면을 살펴보고, 4장에서 도시화에 따른 지역교회의 선교방법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고, 5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봉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자가 섬기는 하양교회를 중심으로 6장, 7장에 걸쳐 구체적인 선교적 봉사와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시행하고 이를 평가해보려고 한다.

## 제 2 장

### 성경적 도시목회론

#### 제 1 절 도시목회를 위한 성경적 고찰

##### 1. 구약에서의 도시

최근 도시선교론을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의 한 선교학자는 성경을 도시의 책(an urban book)으로 말할 정도이다. 성경의 주요한 인물인 모세, 다윗, 다니엘 및 예수님은 다 도시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sup>8)</sup> 프랑스의 평신도신학자 자크 엘롤은 “도시의 맨 처음 건설자는 가인이었다”고 말한다.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인 후 혼자서 도망하다가 불안감에서 정착하여 성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도시가 된다. 인류역사는 처음부터 형제의 싸움으로 시작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누군가가 쫓아 온다는 위기의식에서 혼자서 계속 도망하다가 늦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창 4:16).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고대근동 고고학의 대가인 롤은 도시를 세운 자는 가인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이색적인 이론을 제기한다.<sup>9)</sup> 인류문명은 세속적인 도시건설로 시작한다. 도시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함께 보호받고 공동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인으로 시작된 도시는 인류문명의 비극으로 출발한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의 후손들은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건설한다. 창세기 4장 22절에서 가인의 6대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공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였다. 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후손들의 이동과 문명발전을 직접 탐사하고 두발-가인은 청동기시대를 연 사람으로, 그 지역은 현재의 아르메니아의 중심지라고 결론짓는다. 대신에 셋의 후손들은 문명을 건설하는 이야기는

8) Robert Linthicum, 하나님의 도시, 사탄의 도시, 명성훈 역(서울: 나단, 1993), 10.

9) 참조. David Roll, 문명의 창세기, 김석회 역 (서울: 해냄사, 1999), 301-302



없지만 하나님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 불렀더라”(창 5:26)고 하였다. 그는 성(도시)을 쌓은 다음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창 4:9-17)이라 하였다. 가인 이후 인류는 자신의 생존의 터전으로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적인 '죄악의 문화'로 변질한다. 도시화와 근대화는 종교와 대립되는 것이 인류문명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아시아의 일부 종교원리주의자들은 세속화에 반발하면서 거룩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거룩한 국가란 물론 신정정치를 의미하지만 자기들의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종교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물론 기독교도 세상문명이 세속주의에 지배당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강력한 권력자로 등장한 니므롯은 반신적인 문명을 건설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창 10:9). 특이한 사냥꾼보다는 ‘힘있는 사냥꾼’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성을 세운다. 이 점에서 “그는 뛰어난 건축자이다.”<sup>10)</sup> 니므롯은 인간적으로는 강력한 권세를 가졌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세상은 죄악과 부패가 급속도로 확산된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

바벨 탑 이야기는 도시와 관련되고, 이 도시들은 반신적 요소를 지닌다. 이것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엘룰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바벨과 니느웨와 다른 모든 도시들은 한 사람에게 의하여 건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지식을 주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 .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도시들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민족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도시들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니므롯의 후예들은 본문에 의해 도시거주자들이 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구약의 도시를 다룰 때면 바벨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다른 도시들의 “머리요, 표준이다”. 바벨론은 문명의 중추다. 산업은 도시를 위하여 가동되며 도시에서 발달한다. 동시에 힘

10) Jacques Ellul. 도시의 의미. 최홍숙 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2) 33.

도 도시에서 발생한다. 바벨론 도시에 대하여 엘름은 철저히 부정적이다. 그는 “거기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팔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sup>11)</sup>

구약에서 기독교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이다. 이 두 도시는 멸망한 도시의 모델이다. 그래서 많은 구약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경고로 삼았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의인의 존재(presence)는 도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에 대하여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16:49). 신자는 죄악의 도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의 도시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공의(정의)의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세 방문객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소돔성의 구원을 애걸하였다(창 18:22).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하고 만다. 이 점에서 소돔은 도시는 윤리적으로, 특히 성문화가 엄청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그 당시 소돔에는 동성연애자가 있었다.

다음으로 그 유명하고도 무서운 도시인 니느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다. 그 도시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에 1만 명의 노예로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점에서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다. 니느웨는 미려함으로 유명하여 가인이 에녹을 창건한 이래 지상에 세워진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며 부와 풍요에서 다른 도시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통한 약탈과 압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피 성으로, 병거 바퀴소리가 요란한 도시, 마술의 도시로 묘사한다(나 3:1-7). 그린웨이는 니느웨 성의 죄악은 포악, 군사적 정복자, 위상문화의 대명사, 교만의 도시로 설명한다. 그는 니느웨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니느웨의 부와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압제와 전쟁, 그리고 약탈에 의해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전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생활은 군사적 도발과 약한 국가들을 착취함과 노예노동력에 기초하고 있었다. 선지자 나훔은 이 열국의 배신자요, 음행의 도시를 묘사함에 있어서 최상급 형용사를 앓지 않았다. 니느웨는 마술의 여왕이었

11) Ibid., 46.

고 악행의 수도였다.12)

이러한 니스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 요나는 니스웨로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국 그는 니스웨에 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메시지는 오히려 심판의 복음이었다. 요나가 처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악한 도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을 것이다. 남아연방의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는 요나를 선교정신이 없는 선교사라고 말한다. 화란의 진보적 선교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는 요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모르는 데 기인한 잘못된 처사로 설명한다. 즉 하나님의 예정을 봉사나 선교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권으로 오해한 전형적 실례로 지적한다. 죄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죄악의 도시가 집단적으로 회개한 특이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악한 도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다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벨론 역시 죄악의 도시라는 점에서 니스웨와 다를 바 없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장면은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난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 이방에서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한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정착하여 “집들을 짓고 그 속에서 살라고 한다”(29:4-7). 더 나아가서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 도시가 평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여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린웨이는 도시 속의 신자의 현존으로 표현한다. 그린웨이는 신자들은 악한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도하라고 제안한다.

하나님께서 도시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심을 고려할 때 교외지역으로 도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너나할 것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은 구속사의 모든 주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왕국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도시로 보내심을 계시해준다.13)

12) Roger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론, 1988), 26.

13) Ibid., 48.

구약의 도시 가운데서 예루살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영적 중심지이며 이방인의 중심지(focal point)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신자들에게 성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 더이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분명히 거룩한 도시였다. 다만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크 엘룰은 계시록에서 새 하늘을 새 예루살렘에 비유함으로 천국도 도시로 묘사한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한다. 즉 다른 종교는 대부분 천국이 아름다운 전원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 기독교는 하늘나라를 도시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선택도시이면서 동시에 “피의 도시였다.”<sup>14)</sup> 현재 예루살렘은 불안한 평화가 깃들고 있다. 회교사원, 유대교회당, 기독교회당이 공존하면서도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교적 도시라도 도시로서 모든 문제점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신약에서의 도시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며 도시에서 도시로 확산되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오순절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오순절사건은 신약교회를 탄생시키고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교회설립의 무대는 주로 도시가 된다.

신약교회가 탄생되는 로마제국은 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바울도 로마시민권을 가졌는데, 사실 시민권은 엄밀히 말하며 국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어로 국적이라 하지 않고 도시인을 의미하는 시민권이라 말한다. 시민권(citizenship)이란 도시인을 의미한다. 바울도 로마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행 21:39). 바울리 선교할 당시 로마는 권력과 문화의 좌소(seat)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교회는 도시를 선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바울은 기독교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도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나타내었다. 이방인이라는 영어 “Pagan”은 실은 “시골 혹은 촌사람”을 의미한다. 이방인 혹은 이교도라는 영어 “Heathen” 역시

14) Jacques Ellul. 도시의 의미. 199.

“집들이 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sup>15)</sup>

먼저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을 살펴보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 왕에 의하여 왕국과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 왕 때 이미 행정·군사·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다윗은 여러 도시에 임시보관해 두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영구보관케 함으로써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마치고 부활의 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선교활동을 시작하셨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셨다.

바울이 이방선교에 있어서 전진기지로 삼았던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행11:19-26)은 성경에 소개되는 16개의 안디옥 중 하나로서 지중해에서 약 5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아시아지역의 가장 큰 도시이다.<sup>16)</sup> 안디옥은 “아름다운 안디옥”,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국제도시였다. 안디옥은 동서문화가 교류되고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비도덕적인 타락의 도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안디옥은 아폴로 신전 등 수많은 신전과 종교적 매음을 일삼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울의 선교로 기독교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결과 안디옥은 도시선교에 대한 성격적 근거로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와 교회가 되었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sup>17)</sup>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하여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및 아시아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설립한 교회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획해서 여행과 서신으로 독려하였고, 도시교회를 육성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도시교회의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중요도시를 선교의 요충지로 삼아 전도함으로써 인근지역까지도 복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준 점에서 위대한 교회이다. 안디옥에서 첫 신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는 단어이다. 즉 유명한 사람의 추종자들에게

15) Harvie Conn, ed., Planting and Growing Urban Church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123-124.

16) Roger Greenway, ed., Discipling the Ci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58.

17) 이상근,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교육부), 45.

유명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또한 고대세계에서는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웠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주를 그들의 주인으로 확실히 섬기고 따랐다. 오늘날 도시의 일부 교회들은 교회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세속도시 속에서 교회가 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구성원들이 진정한 제자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식이 오늘날 커가고 있다.”<sup>18)</sup>

안디옥 교회는 또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하는 점에서 모델이 된다. 풀러 신학교 교회성장학은 초대교회는 동질집단의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안디옥은 유대인으로부터 흑인까지 인종구성이 아주 다양하였다. “안디옥은 한때는 그리스의 도시였다가 또 어느 때는 로마의 도시였다가 또 한 때는 유대인의 도시였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두의 도시가 되어있었다. 그것은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이 만나는 곳이었다.”<sup>19)</sup>

도시의 전도전략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는 먼저 유대인회당을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는 유럽의 첫 도시였다. 그는 먼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였거니와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였다(행 17:10).

다음 그는 복음의 수용성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즉 바울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을 한다(행 17:11).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신은 이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가급적이면 유대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였다.

바울의 도시선교에서 현대도시 교회에 귀감이 되는 중요한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즉 그는 전략적 도시에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당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가정교회만 존재한다. 로마서 16장에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문안편지가 있다. 그 편지에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이다. 바울은 결코 교회당과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동일시하지 않았다. 현대용어로 말하면 건물 강박관념(edifice complex)에서 해방되었다.

### 3. 바울의 선교동기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우상

18) Roger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94.

19) Ibid., 87.

을 섬기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시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바울의 선교의 동기는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conversion) 때에 이방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그의 특별한 순종이었다(행 9:15; 22:17-21; 26:17). 이 특별한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에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된다(갈1:16; 2:7, 8; 롬 15:16).

둘째,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잃은 세계(lost world)에 대한 불타는 비전이 있었다(롬 10:13-15; 고후 5:13).

셋째, 바울은 “육신의 장막 집”(고후 5:1)은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고후 5:2)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고후 5:10)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확신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보면서 보수를 위해 복음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였다.

넷째, 바울은 영혼구원은 아주 긴급한 일이라고 확신하였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그는 “지금”이 영혼구원의 날임을 확신하고 선교가 긴급함을 절감하였다.<sup>20)</sup>

도시의 절망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새 것이 왔습니다”(고후 5:17, RSV).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물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바울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해케 하시는 화해의 사역이 로마세계의 도시에 대한 바울의 선교와 메시지의 내용이였다.<sup>21)</sup>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

20)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94-96.

21) Roger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104.

는 안디옥에서 그가 설교한 것 속에서 볼 수 있다(행 13:16-41). 바울의 메시지는 구약성경에 그 뜻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다루신 것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갔다(행 13:23).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흠어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도록, 즉 예수는 구약예언들이 성취되어 오신 메시야이심을 인정하고 바울이 선포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믿으라고 호소하였다. 바울의 메시지 속에는 그의 사명에 대한 열정과 그것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낙관이 있었다. 그는 선지자 하박국을 인용하여 “조소하는 자들은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일러주어도 믿지 않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행 13:41)라고 말했다.<sup>22)</sup>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고백은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화해라고 지적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 4). 이것은 바울이 그의 시대의 도시에 일관되게 선포한 메시지였다.<sup>23)</sup>

화해를 통하여 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놓임을 받고 새롭고도 변화된 삶을 살도록 세상 속으로 석방된다. 화해는 위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은 여기 지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업적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며,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활동,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끼친다.<sup>24)</sup>

이처럼 도시에 대한 성서적 관심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도시선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다. 인구의 밀집지역인 도시에는 온갖 범죄와 죄악이 동시에 창궐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도시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 한다. 그러므로 도시는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회

22) Ibid., 107.

23) Ibid., 109.

24) Ibid., 110.



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는 데 도시선교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 제 2 절 도시선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초대교회 시대의 도시

이미 언급한 대로 인류문명은 도시로 시작한다. 고대사회는 유목과 농경사회였다. 유목사회는 이동사회고 농업사회는 정착사회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정착하면서 도시를 형성하였다. 토인비의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촌락사회→작은 읍→소도시→대도시→거대도시→세계도시로 발전한다.<sup>25)</sup>

도시역사는 가깝게는 히랍과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히랍은 철저히 도시국가로서 도시가 정치를 의미하였다. 영어 'polis'는 '도시'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는 하나의 성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요새나 성벽을 중심으로 한다. 즉 집단적 방어와 보호에서 도시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인의 도시와도 일치한다. 당시는 모든 정치가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소도시들은 종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었다. 아테네의 올림피아 델피 신전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아테네가 발전시킨 올림픽은 실은 제우스신에게 경배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신을 믿게 되어있다. 아테네는 4년마다 한번씩 경기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은 제우스신의 보호 아래서 자유로이 여행을 즐겼다. 그래서 만약 이 순례를 위반하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델피 신전과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로부터 종교축제인 극장이 생겼고 이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할 때에는 신전의 승려가 제일 앞줄을 차지한다.<sup>26)</sup> 그래서 어떤 학자는 "B.C. 5세기의 참 종교는 도시에 대한 헌신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히랍의 소도시를 우주적 도시(cosmopolis)라고도 한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도시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세계시민의 정신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2. 중세의 도시

중세의 도시는 Theopolis로 정의할 수 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공인 이후 기독교

25) 신세원, "한국교회의 도시선교론", 114.

26) Ibid., 115.

교는 정식으로 도시에서 거점을 확보했다. Cosmopolis를 Theopolis로 바꾸는 시기였다. 중세는 길드와 교회, 영주가 지배, 특히 교회와 영주가 함께 하였다. 소읍에서는 목가적 분위기였으며 교구적 교회가 생겼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은 두 개의 도시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교회의 순정성이 신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기독교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는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도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며, 신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sup>27)</sup>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의 유형적 가견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성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신학적으로 최초로 확립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sup>28)</sup>

어거스틴에게 “역사적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자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그러므로 그는 현세적, 역사적 교회는 항상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긴장과 이중 구조 속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도나투스 파의 사회적 이중성이 어거스틴에게는 종말론적 긴장으로 바뀌어졌다고 하겠다.<sup>30)</sup>

로마카톨릭 교회는 지상교회의 권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거둬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며 심지어 교회에 이름을 등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었다. 지역교회는 성서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지만 로마카톨릭처럼 지역성과 지상성을 너무 강조하면 영적인 교회의 권위가 무시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곧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다.<sup>31)</sup>

중세시대에도 섬김으로써 사회와 공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아 오면서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가난한 자, 고아,

27) Sydney Houton,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44.

28) Ibid., 45.

29) 김명혁, “어거스틴의 교회관과 국가관”, 34.

30) Ibid.

31) Ibid., 85.

과부, 노예, 빚진 자 등을 섬겼으며 특히 수도회(수도원)들이 불행한 사람에게 대해 순수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당시에 많은 수도원은 섬기는 사역과 책임에 관계되었고 특히 초기의 수도원은 일종의 병원과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받고 고아, 과부, 나그네 등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숙소가 되었으며<sup>32)</sup> 교회보다는 수도원 쪽에서 적극적이며, 비교적 순수한 사랑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므로 사회와 공조하여 사회의 칭송을 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우선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결인사회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교회와 신자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sup>33)</sup>고 1520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주장하며 무위도식하는 결인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교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구제사업의 개혁을 촉구했다.

### 3. 종교개혁과 근세의 도시

개혁교회는 로마교회와 루터교회와 달리 권징을 교회 됨의 지표로 삼는다. 말씀의 선포로 거의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권징을 교회 성립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지만 권징이 필요하다. 권징을 하지 못하면 교리와 교회의 거룩을 지킬수가 없다. 권징은 우선 윤리적인 면에서 시작하므로 윤리만을 그 전 대상으로 알기 쉬우나 윤리의 영역에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리도 바로 지킬 수 없다.<sup>34)</sup> 권징은 교회가 전투교회로서 지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을 고치는 교회의 자체 정화행위이다. 이러한 권징은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한다. 이 한계는 곧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위치도 자각하게끔 해준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져야 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순결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만남을 시도할 때에는 항상 자기가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는지, 그 만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교회가 중심에 지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교회와 함께 하는 그가 세상사람의 삶을 자기

32)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55.

33) Haskell M. Miller, 39.

34) 조영엽, 225.

의 권세 안에 두고서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하신다. 신앙이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 사회적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의 성질이 여러모로 변해가고 있다. 고대에는 그것이 우선 노예의 문제였다. 중세에 와서는 사회문제가 일면 등장하는 소시민과 일면 다양한 군주 사이의 긴장-갈등관계로 등장하였다.<sup>35)</sup>

#### 4. 현대의 도시

대도시→거대도시→세계도시의 특징을 가진 것이 현재의 도시모습이다. 도시는 농촌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도시와 농촌의 차이

농 촌	도 시
원의사회 마을로 뭉쳐짐, 협동이 미덕	선의사회 도로로 이어짐, 질서가 미덕
1차 산업 중심	2, 3, 4차 분업경쟁 사회
전통성, 폐쇄성, 보수성	근대성, 개방성, 진보성
전원적인 자연사회	인위적 인공사회
윤리 공동 사회(자연과 혈연)	이익공동 사회(지능적 이익)
동질 단위	복합이질 단위
가족주의	개인주의
집합주의	자유주의
권위주의	현실주의
인정주의	비인정주의

35) Ibid.

이러한 현대 도시의 특징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사는 집중화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있다. 도시의 문제점으로는 인구 과잉과 집중화를 들 수 있다. 인구밀집화 현상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사회병리적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해문제, 교통문제, 빈민굴, 주택난, 범죄, 향락주의를 들 수 있다. 특히 도시화 현상의 정치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 도시화는 권력의 집중화현상과 비대화현상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후진국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관계는 존 록크가 말한 것 같이 “이리 대 이리의 관계”가 된다. 여기에서 자연히 통제가 불가피하다.

데니스 클라크(Dennis Clark)는 도시는 스포츠클럽, 소비자클럽, 성인교육 그룹 등 2차 그룹에 의해 사회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2차 사회조직은 사회 생활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노골적인 정치적 통제로 대치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의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도시에서 보통사람들은 무기력을 느끼고 도시문제에 참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자신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문제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거대한 공동체나 노동조합에 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고독한 군중, 무감각증, 세일즈맨의 죽음이 나타난다. 클라크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개인주의, 유물주의, 인본주의라고 지적했다.

현대 도시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숫자로서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존재하는 절대 다수의 인간실존의 문제가 우리 교회가 주시해야 할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이다. 사회개혁,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텅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접하여 회심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깨달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교회의 도시선교 사명이 있고, 개교회가 지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전도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적인 생산정신은 단지 인간의 노동력의 착취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섭고 악한 것은 인간의 사물화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있어 능동적 인격체가 아니고 단지 “노동력”일 뿐이다.<sup>36)</sup>

도시에서의 사회적 평화는 두 가지 문제가 조화 있게 해결될 때 찾아온다는 것이 현대도시에 대한 교회의 이해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이웃, 인간의 인간 됨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인적인 상담자요, 봉사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교회의 도시에서의 사회봉사 활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영국에서는 교회가 1908년 파이어 재단(Payer Foundation)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금주운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선도를 위해서 보호감찰 사업(The Protection Service)을 시작하였고 최근까지도 집 없는 어린이들의 입양이나 시설보호(The residential care)을 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sup>36)</sup>

또한 무디 목사도 가난한 자를 위한 목회열정을 통해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는 바뀌어도 성서에서 시작되어 사도와 초대교회에 이어진 섬김으로 사회와 공조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부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섬김의 전략도 보다 더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에 관심을 두고 모든 개인이 사회에서 정신적, 육체적,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 5. 한국교회와 도시사회 봉사

지난 1세기 동안 한국교회의 민족의 중흥을 이루는 데 많은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동안 많은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 왔던 것이다.

1950년도의 민족상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1960년대에는 빈곤, 질병 등 고난의 신학적 의미를 정립했으며 1970년대에는 경제부흥과 함께 교회 내의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축적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선교를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으로써 자립, 자치, 자력 전파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보수신학을 자칭하는 장로교 일부교단에서는 지나친 분열로 80년 초, 32교단에서 93년도 61개 교단으로 배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교회성장은 수적 성장만이 아니라 한 몸

36) Ibid.

37)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62.

으로서의 지체의식이 중요하며 이것을 남미의 신학자 코스타스(Costas)는 유기적 성장으로 표현했는데 이 유기적 성장이 없을 때 교회의 사회적 영향을 감소되며 궁극적인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 감리교는 80년 64만에서 93년 136만으로 무려 배 이상 성장했다. 감리교회는 1976년 10월 전국 선교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선교의 기초로 하면서 교세확장을 위한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sup>38)</sup>

한국교회의 성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중 하나가 도시화이다. 이원규는 한국교회 성장은 교회구조적인 요인, 사회상황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한 탓이라고 했다. 교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 교회운동으로서 60년대부터 확산되었던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전도운동 등이 교회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써 성경연구와 친교를 도모하는 것 등이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구조적 성격으로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와 넷째, 교회성장의 사회상황적 요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으로는 한국의 종교문화 그 자체가 교회성장에 매우 적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의 종교성은 매우 수용적이고 적극적으로써 즉 지성과 이성적인 측면 보다는 감성과 열성이 더 강해서 이것은 무종교의 권위나 종교인의 타종교로의 개종을 용이하게 하였고 무교적 기복성과 현실주의를 대중성확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70년대 이후는 도시화가 교회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39)</sup>

나일선은 한국교회가 성장한 첫 번째 요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다. 일본보다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으며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는 밝혔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한국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선교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도시화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는 훈련된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그는 두 번째 성장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에는 1백 개가 넘는 성경학교와 신학교, 8천명이 넘는 신학생이 있으며 92년

38) 김재현, 46.

39) 이원규, 송실대학교 제10회 기독교문화 및 신학 세미나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그 대책”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97), 55-60.

말 통계로 해외에 2천5백76명의 선교사가 파송될 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도 성장의 한 요인이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한국은 특정한 국교가 없는 단일민족이라는 점도 교회성장의 요인으로 꼽았다. 2백25개의 언어와 2만 가지의 계급을 가진 인도, 2백 가지 언어와 54개 종족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7천1백7개의 섬에서 50종족이 80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등은 복음전파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언어와 풍습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신토, 대만의 불교, 중동권의 이슬람교가 국민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샤머니즘과 정령사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이 나일선의 주장이다. 인간은 스스로 힘이 없고 더 높은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종교적 성향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진 사회와 세상에 대한 관심이었다.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성경번역과 문맹퇴치에 앞장선 것도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됐다고 그는 설명한다. 성경번역은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 일조하였고 문맹퇴치는 반상의 사회서열을 파괴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40)</sup>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1884년에 번역됐고 신약이 1900년에 출판됨으로써 신앙생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분석이다.

나일선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잠겨있던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애국심도 교회 성장의 한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한국인과 선교사와의 관계개선, 기독교인들의 도덕수준 향상, 새벽기도회와 같은 새로운 예배모임을 탄생시켰으며 강력한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일제치하에서 교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만큼 자기백성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된 것이 복음화율 30퍼센트라는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말처럼 일제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받은 핍박, 가정에서 불교나 유교신앙을 가진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40) Ibid.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지적이다.<sup>41)</sup>

국내의 한 연구조사기관이 연구한 것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전체의 성장경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sup>42)</sup> 66.8퍼센트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성장이 큰 양적 성장이라고 평가한 것, 그 이유를 기복신앙(35.3%) 물량주의(33.1%) 선교활동 부재(22.3%), 이단성행(9.3%)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전망에 대해 현시점을 교회성장의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할 때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61.3%). 즉 현시점을 교회성장의 위기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부작용의 해결을 통한 미래의 교회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한국교회의 앞날이 밝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목회자는 22퍼센트였으며 더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 목회자도 15.2퍼센트나 됐다. 교회가 성장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 이를 이미 스스로 분석해 본 목회자도 91퍼센트나 됐다.<sup>43)</sup>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하여왔다. 특히 선교 2세기를 맞아 각 교단마다 새로운 선교적 자세와 비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한국교회는 아시아 제일은 물론 세계적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근년에 연 15퍼센트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인구는 1천만에 육박하고, 한국에만 유일하게도 약 138개의 신학교(대학)와 8개의 신학대학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양적 성장에 대해 ‘성장이냐, 비대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며 ‘한국교회 성장 이대로 좋은가?’ 하는 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에 관하여 교회성장을 야기시킨 요인을 신앙체험을 통한 개인의 내적 변화와 정치적, 역사적, 격변으로 인한 사회적 요청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일어나 종교현상으로 보기도 하였고, 사회구조적 불안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사회적 반작용이라고 보기도 하였으며 현대의 도시와 산업화로 생성된 혼란과 불안정이 사람들을 교회로 향하게 하였다고 보기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신비적 권능에 근거한 성령운동의 열매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와 병폐를 안고 있음으로 발견한다. 교회성장학은 한국교회에

41)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그 대책” 27.

42) 명성훈, 교회성장연구소 연구보고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1997), 3-10.

43) Ibid.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역반응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sup>44)</sup> 교회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에는 두드러진 양상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 반성과 개혁 성찰과 함께 성장에 대해 바람직하고 성숙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회는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적 모형으로 삼고 추구해야 할 교회성장의 원리를 모색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들은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 도시화는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세계는 도시화의 정점을 향해 치달고 있는 형편이다. 지속적인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도시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기본골격과 구조를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가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도시의 상황이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본연의 사역과 메시지의 세속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사회 과학자들은 도시가 주도해 나가는 현대의 제 현상을 일컬어 '교회의 위기'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의 급변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상황은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에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고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그 위치는 사회생활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그러므로 목회자는 지역사회를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44) Ibid.

45) Bryan R.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y (London: C. A. Watt, 1966)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42에서 재인용.

## 제 3 장

## 현대의 도시화와 지역교회의 선교방법

## 제 1 절 도시화와 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고찰

## 1. 도시화의 경향과 세계

근대도시의 발생은 1850년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급속한 도시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기계 공업의 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면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의 체질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도시의 발생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인간이 일정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하게 된 BC 5,500년경 석기시대를 도시발생 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부터 도시는 역사적 창조와 중심영역이 되었고 한 나라의 발전적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노동분화와 경제잉여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여가교육과 학문의 향상 그리고 기술 과학의 발전이 초래되었고 도시는 인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중심영역이 되었다.<sup>46)</sup>

오늘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변화는 대도시화와 이에 따른 부도심의 도시화 현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화 혹은 부도심의 도시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는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낳는다. 그것은 나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임을 가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반면에 매우 긍정적으로 도시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현대의 급격한 도시의 성장으로 인하여 적은 노력으로도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고무되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 베커(Lay Bakke)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시화시키고 계시다”라고까지 말하였다. 이런 도상에서 교회는 도시에 대한 자기의 선교적인 방향을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47)</sup>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46) 한원택, 도시행정론 (서울: 범문사, 1976), 11.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열세에 놓인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시란 무엇인가?’ 먼저 그 정의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도시란 영구적이고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가 조밀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량을 위해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의 기회가 있는 지역적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시골 생활과는 달리 이질적 경제활동, 비전통적이고 기동성 있는 분위기, 빠른 생활 속도, 이질적 인간들의 생활, 복잡성, 빠른 변화, 편리한 익명성, 생활 비밀 보존, 2차적인 사회적 접촉, 문명적 세련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곳이 바로 도시이다.

두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가 도시화(urbanization)라는 말이다. 어떤 나라의 도시화를 측정하기 위해선 전체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현재 도시지역 또는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느냐를 두고 이야기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도시화의 과정은 기술적 변화 - 예를 들면 농촌의 기계화로 인해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따위 - 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이동 때문에 도시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도시의 인구집중 외에도 도시화란 권력과 힘의 집중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대다수의 국가기관과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들이 도시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힘의 집중은 도시가 보다 넓은 사회적, 경제적 사회체제 안에서 각종활동들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주도적 중심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지역의 도시화는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도를 기준으로 73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인구는 무려 9억 명에 달하고 있다.<sup>48)</sup>

이런 점에서 서구교회 지도자들은 도시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이른 시기에 인식하고 도시를 선교의 중심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이론 인해 도시는 사회문화의 주류를 형성하여 가고 있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종속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도시주의(urbanism)는 결국 농촌을 주류문화권에서 소외시키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정병관은 도시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도시주의라는 말은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에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47) Ibid., 139.

4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1990 (New York: UN, 1991), 170-171.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IVP, 1993)에서 재인용

존재한다. 이 방식이 도시를 특징짓는 사회 환경과 독특한 경험의 결과이다.”<sup>49)</sup> 즉 도시의 내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 썸이다.

이와 같은 도시의 구도에서 도시의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표 3>에서 살펴보면 1920년까지만 해도 세계인구의 14퍼센트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1, 2차 세계대전을 지난 후로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29퍼센트에 육박을 하고 급기야 1990년에는 45퍼센트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에 가서는 세계인구의 50퍼센트(32억 명)가 도시에 살게 될 전망이다. 이것은 1965년 세계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된다. 또한 2025년에는 65퍼센트의 세계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제3세계에서는 2025년에는 제3세계 총인구의 61퍼센트에 해당하는 44억의 인구가 도시주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1970-2025년 도시지역에서 사는 인구비율과 도시인구<sup>50)</sup>

지역	도시지역(%)				도시인구(억 명)			
	1970	1990	2000	2025	1970	1990	2000	2025
전세계	37	45	51	65	14	24	32	55
제3세계	25	37	45	61	7	15	23	44
선진국	67	73	75	83	7	9	9	11

또 이때가 되면 대도시들의 숫자가 제3세계 쪽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만 해도 제3세계 국가들에서 5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가 2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34개로 늘어갈 전망이다. 이것은 전세계 대도시의 76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49) 정병관, 143.

50)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106-107, 118-119.

〈표 4〉 1950-2000년에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들의 지역별 분포<sup>51)</sup>

연도	대도시의 수			분포비율	
	전세계	선진국	제3세계	선진국	제3세계
1950	6	4	2	67	33
1970	20	9	11	45	55
1990	34	11	23	32	68
2000	45	11	34	24	76

A.D. 1세기만 해도 세계인구는 현재 인도인구의 1/3도 되지 않는 2억5000만 명에 불과했다. 또 1750년 산업혁명이 도래되었을 당시만 해도 세계인구는 7억 2,800만 명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화된 선진국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인구는 24억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난 40년간 세계인구는 급기야 2배로 늘어나 50억이라는 숫자에 달하게 되었다.<sup>52)</sup> 세계인구의 팽창 가도에서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89년 인くい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80년 57.3퍼센트에서 89년 73.1퍼센트로 증가했으며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비율도 지난 60년 이래 20.8퍼센트에 달했으며, 오는 2천년에는 46.8퍼센트 그리고 2020년에는 급기야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2퍼센트가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한국에서 도시가 갖는 중요성은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판단이 된다. 감신대 이원규 교수는 한국교회가 6, 70년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도시교회의 성장을 지적했다. 1982년에 서울이 전체교인 수의 35.7퍼센트(270만)를 차지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4대도시를 기점으로 도시가 전체교인 수의 45.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sup>53)</sup>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제 도시는 교회의 관심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중심지로서 사역되어야 할 필요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 「교회성장 이해」이란 명저를 통해서 도시선교 전략의 중요성을 간파한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그의 책에서 도시선교에 관련한 8가지 전략<sup>54)</sup>

51)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2, 184.

52) *Ibid.*, 34.

53) 기독교사상편집실 편,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성쇠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상*, (1986 11), 19-20.

54) (1) 가정교회들을 강조하라. (2) 무보수의 평신도지도자를 개발하라. (3) 저항적인 요소들을 인식하라. (4)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라. (5) 부족, 카스트, 언어별 교회들을 증

을 논하고 있으며 도시선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하비 콘은 한국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의 도시선교의 경험을 살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도시선교 연구소를 창설하고 「도시선교(Urban Mission)」라는 전문연구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5)</sup> 도시화의 과정은 다양한 원인에서 출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양성하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인구의 이동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소외이다.<sup>56)</sup> 즉 초창기에 형성된 거대한 도시들이 황폐되어 가고 식민지시대에 피식민지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빈민화되어 가고 그들의 거주지가 슬럼화되어 가면서 이민자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심각한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제 1세계의 도시 거주민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삼고 신흥 주거지역으로 교회마저 옮기는 과정에 있다. 한국도 제1세계의 비 도시화과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점 그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다.

현대의 도시는 발전의 중심지가 되면서 변화의 중심지역도 되었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존 실자마키(J. Sirjamarki)는 “도시는 지역 내에 조밀하게 정착해 있는 인간과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결체이며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며, 어떤 공동사회 의식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진보된 인간의 결합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7)</sup> 그는 도시를 인간과 건축물의 집결된 물리적 현상으로 보았고 이들 집단은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식, 문화, 질서 제도 등을 필요로 하는 사회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의 시조, 파크는 도시의 개념을 “문명인의 자연적 생활영역이며 철학과 과학 그리고 합리적이며 세련된 인간을 만드는 창조적 영역이며 인간이 자기를 개조해 가는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정의했다.<sup>58)</sup> 또 포포노는 도시를 “타지역에 비해 도시화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라고 정의하고<sup>59)</sup> “이러한 지역사회는 공동의 문화가 작동하는 지리적 동일지역이며 그 사회를 구성하

가시켜라. (6)교회 재산확보상의 장애를 극복하라. (7)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신앙을 전달하라. (8) 평등사회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라. Donald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471-484.

55) 김성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선교 운동의 선교전략”, 신학지남 통권 제241호 (1994), 312.

56) Ibid., 311

57) J. Sirjamarki, Urban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72), 49

57) E. Robert Park, The City as a Social Laboratory (New York: Mcgraw Hill, 1970), 1.

59) D. Popone, Democracy and Communit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6), 12

고 있는 인간의 광범위한 욕구에 부응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sup>60)</sup>고 말하였고 “이러한 사회조직은 사회적 경계지역, 정치적 경계지역 및 물리적 경계지역 등으로 구별한다”고 말한다.

한편 오늘날 도시에 대한 개념은 “시대성”, “변화성”, “이질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sup>61)</sup> 이렇게 볼 때 도시는 인간의 정착생활에 그 기원을 두고 이질적 인간들의 물리적, 사회적 집단의 영역이며, 창조적, 합리적 결합형태를 표현하면서 다양성, 변화성, 복잡성을 내포한 발전적 중심지역으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980년 티국 파타야에서 열린 선교대회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135개(소련과 중공 제외)나 되며 전세계인구의 85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랄드 브리스(G. Breese)는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곧 국가”라고 까지 정의하고 있고 도시는 “사회의 혼(Soul)”이며 또한 세계에 충돌하는 열쇠 자체이다”라고 클라엘바우트(D. Claerbaut)는 말했다.<sup>62)</sup>

따라서 이제 도시생활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되고 말았다. 특히 대도시는 더욱 그렇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도시화는 산업화와 더불어 지역마다 시차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구 사회는 이미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2차대전 후 현재까지 있는 바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신이 살던 농촌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도시지역 자체도 날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도시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sup>63)</sup>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고용기회의 부족, 주택설비와 도시하부 구조의 미비,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화율이 50퍼센트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며 전통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다.<sup>64)</sup> 이러한 도시를 사회적인 근거를 따라 고찰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인구이다. 따라서 도시는 일단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1887년 국제통계 회의에서는 도시의 인구표준

60) Ibid., 15.

61) 한원택,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76), 13.

62) Gerald Breese,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한원택 역 (서울: 법문사, 1976), 204.

63) 이견영, “도시질서 운동의 정착화”, 새마을 연구논문집 (경기도: 신성인쇄사, 1980), 224

64) 김선건, 새 사회학통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259



을 2,000명 이상으로 할 것이 결의되었으며 미국의 국세조사에서는 인구 1만 이상의 중심지 및 그 주변의 인구밀도 1평방 마일 당 2,000명의 구역을 도시화된 구역이라고 하였다.<sup>65)</sup> 한편 도시에 대한 정의는 유엔의 기록에 의하면 “인구 2만 이상의 사람이 지역적으로 접근하며 한 단위로 형성한 지역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구역 당 인구 5만 명 이상의 한 단위지역을 도시라 한다.

사회학자들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먼저 피레네 (H. Pirenne)는 델리와 동경 같은 정치, 학문의 중심지와 봄베이, 홍콩 같은 경제의 중심지로 대별한다.<sup>66)</sup> 호셀리츠(V.F. Hoselitz)는 생산도시와 기생도시로 나누는데 생산도시란 경제성장에 우익을 주는 도시이고 기생도시란 그 반대이다.<sup>67)</sup> 또한 레드필드와 싱거(R. Redfield, M. Singer)는 “정통발생의 도시와 이질발생의 도시”로 나누었는데 정통발생의 도시란 옛 문화의 체계적이고 반사적인 차원을 지켜 가는 도시요, 이질발생의 도시는 옛 문화와 옛 문명을 초월하거나 상충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도시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를 윤리질서와 기술질서의 도시로 다시 나누어 설명함이 특이하다.<sup>68)</sup> 또한 조베르그(G. Sjoberg)는 산업 이전의 도시와 산업도시로 대별하기도 한다.

실제로 도시의 내면을 부정적으로 관찰한 학자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 혹은 “인종의 시궁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긍정적 밝은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2. 도시화에 따른 목회의 현황

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첫째, 고대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위한 도시”를 생각할 수 있으며 둘째, 왕권의 전적인 수행을 위한 “왕국도시”가 있고 셋째,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를 위한 도시”, 넷째, 상인과 시민을 위한 “민주적 도시” 끝으로, “전문적 기술도시” 등이 있다.<sup>69)</sup> 물론 현대적 의미의

65) 이종익, 도시론 (서울: 법운사, 1984), 17.

66) Henri Pirenne, Belgian Democracy: Its Early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15), Chap. III, 55.

67) B. F. Hoselitz, "Generative and Parasitic Cities", Economic Development Cultural Change 3 (April, 1955), 279

68) Robert Redfield and Milton Singer, "The Cultural Role of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 (October, 1954), 3-4.

69) 이해영, "도시와 시민대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제6호 (1977년 1월), 8.

도시는 급속한 기계공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그 면모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합리적 도시계획에 의한 분학적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도시화의 경향 역시 수다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광역도시이다. 도시의 지역규모는 지형, 역사, 인구 등 그 도시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없다. 급속한 인구 증가는 지역적 확대가 불가피해졌고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인구집중과 지역확대의 현상으로 나타난 도시를 광역도시 또는 거대도시(metropolitan)로 불리게 되었다.

둘째, 농촌과 상대적으로 비유되는 지역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정착하여 살아온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70)</sup> 농촌은 일반적으로 보수성, 정체성, 후진성을 내재한 전통사회 혹은 원시사회로 이해되고 있으며 경작지를 근거로 한 가족 중심의 집단 사회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며, 인적 구성은 동질적이다. 이에 비하여 도시는 경제적 분화가 형성되고 제도적 조직이 확립되어 있으며, 인구분포는 다원화, 전문화되었고, 도시의 사회질서는 가족이나 씨족집단을 초월하여 유기적인 조직과 제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성장과 변화를 통해 부단히 발전하는 지역사회이다.

셋째, 제도적 조직의 유기적 공간이다. 도시는 거대한 인구의 집결지이며 그 성격은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적 도시인들은 상호 협동을 통하여 생활방식을 조성해야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조직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하여 제도와 조직으로 사회규범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가치관을 조정함으로써 운영되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적 사회집단이다.<sup>71)</sup>

넷째, 인간활동의 기능적 중심영역이다. 도시의 기능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인 지형, 자원, 역사 그리고 인위적 개발에 의해 정해진다. 도시는 경제집중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역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력, 자본의 중심지가 되며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인구는 집중되고 모든 방면에 모든 활동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기능적 형성은 어느 한두 가지 기능에 국한되지

70) 김대환, 도시행정론, 117.

71) Ibid., 19.

않고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원화도시 또는 복합도시로 변모하였고 도시의 공간유형도 거대도시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sup>72)</sup>

### 3. 도시화의 현상과 목회의 문제점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경험한 사회변동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시화 현상이었다. 그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농어촌 교회는 지금도 도시교회의 못자리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도시교회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교회의 비대화현상을 야기하였다. 이같이 도시화가 진행중인 도시교회는 전반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하였고, 1985년 말 현재 1천만 신도를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며 세계선교사에 있어서 경이적인 성장을 한 교회가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 평균 신자 수가 172.5명으로 전국평균 80.5명의 두배가 넘고 있으며 농촌교회 평균신자 수인 64.3명에 비해 거의 3배나 된다.<sup>73)</sup>

이렇게 볼 때 분명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도시화현상은 도시교회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현상은 솔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도시교회는 그같은 도시문제 앞에서 선교대상을 직면케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화와 이에 따른 도시 문제의 발생은 도시의 발생과 더불어 존재하였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up>74)</sup>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하양교회가 속해있는 경산시 하양지구의 변동상황 즉 농촌의 중심지였던 곳이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흥주거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했다.

7, 80년대의 도시화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화가 주류였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도시화는 신흥 주거지역으로의 변화가 주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흥주거 지역의 도시화현상 속에서 지역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교회 목회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 기초로써 제반도시 문제들을 분석함에 있는 것이다. 즉 본 장에서는 도시화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도시목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72) Ibid.

73)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 100주년 종합조사 연구서 (서울: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 1982), 166.

74) 이규환, 지역사회의 개발과 이해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77), 134.

만약 하양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 가. 경제적인 문제점

첫째로 도시화현상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의 대표적인 것은 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다. 이는 촌락과 타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의 증대, 인구밀도의 고밀화, 또는 도심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등 도시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독특한 인구현상을 말한다.<sup>75)</sup>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가 하는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 이는 보통 두 종류의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배출요인(push-factors)으로서 농민들을 농촌에서나 소도시에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요소이고, 또 하나는 흡인요인(pull-factors)으로서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요소이다. 이상의 배출요인은 전체적인 농촌의 빈곤, 한파나 홍수에 의한 특정한 빈곤, 인구과잉, 무농토 농가, 실업, 전통생활에서의 도피, 전쟁이나 정치적 억압(피난민) 등이고 중심적인 흡인요인은 도시의 높은 생활수준, 높은 소득, 직업기회, 교육문화 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시장, 교통중심지, 현대의 익명적 도시생활, 행정중심지 등이다.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후 지방도시로 이동했다가 서울로 오고, 또 직접 농촌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sup>76)</sup>

데이비스(Kingsley Davis)는 도시화를 도시성장과 구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화는 전 인구 중 도시인구의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 그에 의하면 도시 인구의 비율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한다.<sup>77)</sup>

첫째, 농촌지역이 도시로 재분류된다.

둘째, 도시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농촌보다 높다.

셋째,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상의 세 요인 중에 세 번째 요인이 가장 현실적이며 중요하다고 한국의 사회학자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세 번째 요인에

75) 권태환, 사회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159.

76) 부광석, 학생과 사회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37-138.

77) K. Davis, "The Urbanization of the Human Population" in Dennis Flargan et al. eds. Cities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Chap. I.

의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보통 좁은 의미에서의 도시화과정으로서 인구집중인데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이고 분명히 불가피한 현상이다. 1800년에는 전세계인구의 2.4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1900년에는 9퍼센트, 1950년에는 21퍼센트, 1970년에는 27퍼센트(UN 통계)로 점점 늘어났다. 비슷하지만 더욱 속도가 빠른 발전이 한국에서도 발견된다. 1920년에는 3.4퍼센트가 도시인구였고, 1940년에는 20퍼센트, 1960년에는 29퍼센트, 1968년에는 48퍼센트였고 그중에서 서울과 인천이 제일 빠른 편이었다.

지난 1985년 11월 1일 0시부터 실시된 한국경제기획원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40,466,577명이며, 가구는 9,575,356이고 주택은 6,274,380이었다. 그 중에 서울인구는 9,645,824명으로 전 인구의 23.8퍼센트를 상회했고 인천은 지난 5년간에 28퍼센트 비율로 1,387,475명이었다.<sup>78)</sup>

“서울은 이제 광역도시화 하고 있다”는 조선일보(1986. 3. 15일자 1면)의 특기사가 말해주듯이 서울은 이제 인구문제로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1985년 도인구조사 중 서울이 946만 6천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가 아닌 전입자(Transfer in)에 의한 사회적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은 1980-1985년 사이에 8.1퍼센트로 상승했고 서울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32,0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인구밀도는 서울이 제곱 킬로미터 당 4,008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 높다. 물론 탈 서울조심으로 주변도시 인구가 전체의 65.4퍼센트를 차지하여 지난 80년 57.3퍼센트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농촌을 이탈한 인구가 그만큼 도시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장의 유입,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마련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온갖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에서 비롯되므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화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도시의 발달이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집중은 도시화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며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집중이 도시화의 지역적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79)</sup>

첫째, 도시지역의 인구 수, 인구밀도가 증대된다.

78) 조선일보 1986년 3월 4일자, 1.

79) 강대현, 도시지리학 (서울: 교학사, 1981), 251.

둘째,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대가 일어나서 도시 주변지역이 도시화된다.

셋째, 도시지역의 내부에 지역적 분화와 재개발, 기능의 다양화가 진행된다.

넷째, 도시 주변지역에 위성도시의 발달, 인접도시화의 연속 및 통화현상이 일어난다.

이상과 같이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도시 문제의 배경은 이것을 크게 보아 산업의 대도시의 집중과 인구의 대도시집중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생겨나는 2차적인 문제가 토지문제, 주거문제, 생활환경문제, 도시범죄, 교통문제 그리고 청소년 비행이나 공해문제 등으로 전개된다. 도시에서의 산업집중은 토지수급의 균형을 파괴하여 지가의 폭등을 초래하며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소음, 진동 그리고 인구과밀로 인한 많은 문제는 도시민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준다. 또한 도시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지가상등 및 이에 수반하여 주택난이라는 문제가 크게 등장하며 주민의 소비생활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은 생활환경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주택의 외연적 확대에 의한 원거리통근과 통학인구의 증대, 차량의 급증 등에 따른 교통체증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공해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대도시에 있어서는 가족형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나 청소년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녹지의 부족은 주민의 정신생활에 압박감을 더해 준다.

이상과 같이 특히 대도시주변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하며 전인구의 65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인구가 가장 몰리는 10대 도시로는 인천, 창원, 안양, 천안, 수원, 영주, 구미, 대전, 이리, 울산, 그리고 경산이다.

특히 세계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20세기초에는 11개였는데 현재는 191개요, 147개가 개발도상국이며, 한국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지만 2000년에는 414개의 도시가 생겨난다고 전망할 때에 인구의 도시화는 보다 심각히 다루어져야 될 오늘의 문제이다.

세계 각도시의 인구증가율은 선교사역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 선교연구가이며 세계기독교 대백과사전의 편집인인 데이비드 바렛트(David Barrett)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25대 도시 중 17개 도시가 2천년까지는 비기독교화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은 대부분 강력한 이슬람, 힌두교, 불교도시라는 것이다. 1950년에는 세계의

25대 도시 중 7개 도시만이 비기독교도시였음을 지적하고 그는 대도시의 등장이 20세기의 제3세계의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2천년까지는 파키스탄의 카라치, 이라크의 바그다드,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 이슬람도시들이 세계 25대도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레트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외의 성서반포 등을 통해 도시의 군중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교회의 첫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sup>80)</sup> 통계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60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 이처럼 도시는 현재도, 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도시행정가나 도시문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곳이다.

#### 나. 사회적인 문제점

도시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점은 도시의 병리현상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각함을 살펴보았고 인구가 도시로 흡입(Urban-Pull)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도전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우선 도시의 병리현상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되는 개인적 병리, 가족적 병리, 지역적 병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 첫째, 개인적 병리

개인적 병리는 지난 25년간의 한국 도시사회의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과 발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변동을 뜻하며 근대화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제도 전반의 조직과 기능, 문화적 생활 면 전체의 변화"<sup>81)</sup> 앞에서 비로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한국사회는 지난 25년간 개발(development)과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명목으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치변동에 따라서 모든 사회제도적 변혁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극도의 이기주의, 과열된 경쟁주의, 편법주의, 불신풍조 등의 가치관의 혼잡과 그에 따른 행동규범의 무질서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무질서의 행동규범으로부터 파생된 사회병리, 즉 개인적 병리는 심신장애, 중독, 자살, 도박, 범죄, 청소년비행<sup>82)</su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80) 교회연합신문, 1986년 8월 17일자, 2, 대한기독교보 1986년 5월 17일자, 2.

81) 오갑환, 사회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74), 290-292.

여기에 대하여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그의 저서 「Death in the City」에서 “현대를 사랑과 미와 의미의 결핍으로 굶주림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하비 콕스(H. Cox)가 말했듯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도 익명성(Anonymity)이란 도시의 특징 때문에 개인의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광복 39주년을 기념으로 문화방송국(MBC)이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팀을 주축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지향에 관한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중요순서를 보면, 범죄(5점 척도 중 4.5), 인구문제(4.4), 공해(4.4), 빈부격차(4.3), 사회풍조(4.3), 부정부패와 금전 만능주의의 팽배(4.2), 물가(4.1) 순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회현상 중 개인병리에 속한 범죄가 제일 많은 것을 보아서도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곧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병들면 그가 속한 사회와 지역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 둘째, 가족적 병리

가족적 병리현상은 개인병리와 더불어 지역병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속한 병리적 현상으로는 가정파괴, 가정 결손, 사별, 이혼, 가출, 그리고 생활기능의 장애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82)</sup> 이러한 문제 외에도 가족형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녹지부족은 주민의 정신적 생활에 압박감을 더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도시하층에는 임시직, 일당직, 가내노동, 육체노동의 상대적 과잉인구의 경제적 형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상태의 장기화로 이들은 의식주의 결여만이 아니고 건강이나 체력의 손상을 입어 마침내 생리적 상태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적 퇴폐로 이어져 빈민의 상태로 침전되어 간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황폐지역, 즉 슬럼(slum)이 형성되어 범죄, 폭력, 매춘, 질병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내포하게 되며<sup>84)</sup> 더 나아가 이런 영향으로 가족적 병리현상을 일으켜 부랑을 자초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하층계급 사회에 속해 있는 도시민들의 생리적 혹은 정신적 퇴폐를 막고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사전예방하며 사회불안의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하층계급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

82) 이규환, 지역사회의 개발과 이해 25.

83) Ibid., 138.

84) 최호준, “도시빈민의 현황과 그 문제”, 민중과 함께 하는 한국교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교총회 사업부, 1983), 24-25.



### 셋째, 지역적 병리

높은 교육배경과 지식, 기술,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해오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도시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에 그들이 살았던 농촌생활과 비슷한 이웃관계를 형성한다.

때로는 주거문제로 도시변두리에 자리를 잡는데 종종 도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는 사업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파괴로 인한 심각한 지역적 병리현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철거문제, 보상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적 문제와 인권의 문제까지 관련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sup>85)</sup>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병리문제에는 사회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문화구조, 사회구조, 인격구조(또는 대인관계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요청된다.<sup>86)</sup>

특히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구조는 유교의 실천윤리의 특성으로 가족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풍부한 정서 속에서 삶의 멋을 찾는 가족의 삶의 균형이 깨어질 때 지역적 병리현상을 초래한다. 그 결과로 빈민가, 우범지대, 공해, 사교, 환락가, 저급하고 퇴폐적인 성윤리, 가치관의 혼잡과 행동규범의 무질서(anomie)가 표출된다.

그래서 도시생활은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사회적 측면을 소유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빅터 발드리지(J. Victor Baldrige)<sup>87)</sup>는 기업화, 도시화의 전전과 고도화에 따라 현대도시가 거대화, 조직화, 관료화 되어감에 따라 많은 편의시설과 도시문제의 그 소화를 위한 많은 대책이 세워지지만, 경제성장의 고도화로 인한 모든 계층, 현상간의 괴리, 지나친 경쟁, 탐욕스런 상업주의, 비정상적인 출세주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현대사회 특유의 도시화, 공업화, 근대화의 측면으로부터는 인구증가와 도시집중, 인구의 과밀화현상, 대중화현상, 인간의 원자화현상, 이질화현상, 이동성, 익명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도시화현상 속에서 날로 심화되어 가는 현상은 도시의 세속화이다. 이는 도시의 바벨론화라고 할 수 있다.<sup>88)</sup> 분명 모든 도시화가 세속화의 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

85)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405-406.

86) 김병서, "한국사회의 문화와 사회현상", 민중과 함께 하는 교회, 50.

87) J. Victor Baldrige, 비평학적 접근으로 본 사회: 갈등과 변화, 이효재, 장하진 역 (서울: 경문사, 1980), 327

88) 계 14:6-28, 27; 18:18, 1-24

지만 하나님의 도시 에덴이 가인의 도시로 전락한 이후 이제 도시는 멸망과 심판의 도시로서 계속 바벨론화되어 가는 중이다. 따라서 도시는 니느웨의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며 종내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해야 될 선교의 적지이다.<sup>89)</sup> 세속화되는 도시화의 현상은 주로 실용주의, 공리주의, 인간정체의 상실, 물질만능주의, 무관심, 무모한 경쟁, 신경적 긴장의 고조, 도시의 고독 또한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에서 주지한 대로 스위치보드, 클로버 잎 속에 배어나는 불경성, 익명성, 이동성 등의 도시성(urbanism)이다.

이상의 도시문제를 토플러 (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속에서 맞는 대전환기의 경험”이라고 한다. 오래 전 인간이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최초의 사회적 격변기를 경험했고 수세기 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부터 제2의 격변의 물결이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제2의 물결이 핵가족의 등장 남녀역할의 변화, 도시화, 관료적인 사회구조, 대량교육 형태, 집중화, 분업화, 평균화, 동시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사회에 새로운 구조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나타난 고도의 'Hi-Tech 혁명'(첨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제2, 제3의 물결 속에 종래의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되고 윤리도 무너지고 가족 구조도 변화되면서 실존적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부재현상(Caring Community)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영어의 '세속(secular)'이란 말은 '이 세대 (this present age)'란 뜻을 가진 라틴어 '세쿨룸(saeculum)'에서 온 것이다. '세쿨룸'이란 '세상(world)'을 뜻하는 두 라틴어 - 다른 하나는 현세(mundus) - 중의 하나이다. 처음 '세속화'라는 말은 '종교적 교역자(Religious Priest)가 교구를 책임지게 되는 과정'으로 쓰이다가 차츰 광의로 쓰이게 된 용어이다. 곧 교권으로서 어떤 책임을 정치적 주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었고 나아가 더욱 구체적으로는 1648년 우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영토나 재산이 교회의 권위에서 정치적 권위로 양도되는 것<sup>90)</sup>이 되었다. 19세기에 와서는 하비 콕스가 본 웨퍼의 「기독교의 비 종교화」의 주장에 영향을 받음으로 그 역시 「본 웨퍼 없이?」라는 글에서부터 '세속화'를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1960년대) 도시문명의 발전과 전통적인 종교의 붕괴를 세속도시의 2대 특징으로 언급하면서 이 세속화를

89) 히 11:10; 13:14.

90) 정재식, “현대문화와 종교의 변동”,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2), 86.

시작한 것이, 곧 세속도시에서 붕괴의 여로를 밟고 있는 바로 기독교라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세속화란 '인간의 문화생활이 교회와 신학의 지배로부터 분리되고 독자화되는 과정' 또는 '거의 확실하게 역행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 또는 '사회와 문화가 종교적 지배, 폐쇄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의 지배로부터 구출되는 과정'으로 보는데 이는 모두 인간의 성숙, 인간의 책임, 인간의 해방이라는 등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도시화를 어차피 인간에게 주어진 사건(happens to man)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새로운 역사적 현실에 대처하려는 인간적 노력, 즉 보다 확대되어가는 상호의존의 제도 속에서 타인과의 보다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역사적 현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세속화가 도시화에 선행할 뿐 아니라 그 결과이기도 하며 도시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본 웨퍼가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화에 설정했던 이론과 같은 것이며, 버거(P. Berger), 뒤르켐(E. Durkheim), 베버(M. Weber)들이 인간 자신에다가 사회적 주체를 두는 지평인 것이다.<sup>91)</sup> 결국 세속화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그것이며 바로 그것이 선악과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창 3:5; 11:4).

그러므로 하비 콕스(H. Cox)가 도시화에 선행된 세속화를 책임 있게 보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현대문명 속에서 사는 실용주의적 인간을 오히려 찬양함으로써 목회 신학까지 세속화시켜 버린 입장을 보게 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The Secular City」에 이어 「Religion in the Secular City」<sup>92)</sup> 내어놓아 기독교의 새로움을 확인하고 증언하려는 시도를 보지만 역시 기독교의 세계변두리와 밑바닥을 소개함이지 이 역시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세속적 가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세속화는 교회의 세속화에 영향을 주었고 개중에는 도시세속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다음은 세속화현상 속에서 제기되는 목회의 문제점들이다.

#### 다. 문화적인 문제점

첫째, 인본주의, 곧 바벨탑 사건이 교회 내에 팽배하는 현상(창 3:5; 11:4). 둘째, 기복주의, 곧 물질주의와 물질만능이 주는 불경건적 현상(마 6:19-34). 셋째, 찰나주의, 곧 보이는 것에 우선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예수재림의 종말

91) 김성건, "세속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학연구소 (서울: 대영사, 1984), 86.

92). Harvey Cox, 현대 사회로 돌아온 종교, 이종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7.

신앙에 대한 태만(고후 4:16-5:7; 히11:10, 16; 10:34-38). 넷째, 세속주의, 곧 참된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잃어버린 교회의 세속화의 심화현상(시 50:22; 고후 5:8-10; 계 20:11). 따라서 도시의 세속화는 이 시대의 크나큰 선교적 과제요, 복음선교의 도전장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세속화 현상 속에 나타난 도시목회의 문제해결은 도시의 회개뿐이다. 그리고 도시 안에 사는 개개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구조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다. 회개(Poenitentia)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며 믿음의 결과이다(요 1:13; 행 20:21). 회개에 대한 히브리어는 'Conversion, Return'이고 헬라어는 'Change of Mind or Intention'이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나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곧 회개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는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true turning)이다. 그리고 회개의 근거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마 3:2; 4:17).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이 소생케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이 세속화를 막아야 하며 그 사명으로서 불가피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문제보다 더 저편에 있는 더욱 근본적인 것은 왜 칭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같은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이 화해는, 곧 용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원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인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 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같이 우리도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부탁 받았으므로 이 화해의 말씀, 곧 죄의 용서를 세속사회에 나가서 증거해야 할 것이다.<sup>93)</sup> 이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위에서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office)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말한다.<sup>94)</sup> 그의 제사장 직분은 화해와 중재의 일을 가르킨다.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복음전파자로서, 살롬의 증거자로서 세속도시를 선교해야 한다(벧전 2:8). 도시의 회개와 변화의 정도는 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폭만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개인의 죄의 고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이 전 세속도시에 선포될 때에 교회는 그 도시의 희망으로 나타나게

93). 요 20:21, 22.

94) 히 9:7, 22.

될 것이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문제점은 다 있다. 특별히 하양교회가 속해 있는 신흥개발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도시 자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시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라. 목회적인 문제점

1960년대부터 한국의 도시도 전반적으로 근대화와 도시화로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서구사회가 경험한 인구밀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교회는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도시문제에 대한 몰지각함 때문에 도시의 거센 물결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다.

따라서 도시교회는 이상과 같은 폭발적인 인구집중과 교회평창을 경험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목회적 문제 앞에 서있게 된다.

첫째, 교회의 비대화로 인한 몰량주의, 대 교회주의가 나타남으로 유물론적 기독교로 변질되는 위기에 서게 된다(행 3:1-10). 둘째, 인구집중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신자들의 내면적 가치개발이 부진하게 되므로 교회마다 아노미적 현상이 일어난다(마 24:12). 셋째, 도시목회자의 소명과 거룩이 약해짐으로 교역자의 위엄과 리더십이 무너진다(사 6:1-10). 넷째, 많은 평신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게 되고 타락한 세계교인이 증가되기에 이른다(마 9:35-38). 다섯째, 인구가 몰리는 교구에서 지적간에 세워지는 교회의 난립현상과 그로 인하여 교인 뺏기에 급급한 잘못된 교회성장 신학과 도시목회 신학이 혼미하여 진다(고전 3:10; 롬 15:20). 이상과 같이 도시의 인구밀집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도시목회의 난제들이 속속 들어나게 되었으므로 교회는 속히 인구집중에 대한 제반현상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몰지각 내지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흥도시로의 발전단계에 있는 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증가(multipling Addition)로 늘어나게 될 인구폭발을 예견하면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적인 목회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선교 학회나 도시선교사들의 전문적 훈련이 교회목회를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난제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흥 도시지역에서의 목회의 갱신과 회개는 바로

신흥 주거지역 사회구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신득의'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목회가 강단을 통하여 고취되어야 한다.

도시의 사회학적인 병리현상이 신흥 주거지역에 그대로 유입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첫째, 교회의 잘못된 직제와 소수주의(oigarchy) 그리고 계층성(herarchy)현상(막 9:33-37)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둘째, 만남과 대화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갈등으로 이질화 현상(엡 4:1-16)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동질그룹이 모여서 제기되는 교회의 기능과 역기능화(고후 6:11-13)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가진다. 넷째 '찾음'에서 추수된 하나님의 교회가 빈부의 격차나 교회의 상업성 때문에 도리어 '잃음'으로 치달는 악순환(눅 19:10; 막 11:15-19)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권위로 성도들을 제자화해야 한다. 다섯째, 잦은 이동성 때문에 전통적 교회사랑이 퇴색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상(딤후 3:1-5)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그룹을 개발하여 이에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

#### 4. 신흥 주거지역의 현황

##### 가. 신흥 주거지역 개념

“신흥 주거지역” 혹은 “신도시”라는 개념은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서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또한 신흥 주거지역의 성격을 규명하는 학자들의 시각과 신흥 주거지역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물론 거기에 내포된 의미 또한 다양하다. 신흥 주거지역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영국의 전원도시 및 도시계획 협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전원도시란 건강한 생활과 산업을 위하여 설계된 도시로서 그 규모는 사회생활의 편익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정도에서 더 이상 커서는 안되며 도시의 범위는 농경지로 둘러 싸여 있고 토지 전체가 공유이든지 아니면 토지사용이 공익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원도시 이후 신흥 주거지역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그 개념도 전원을 배경으로 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계획된 대도시의 확산과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는 등 계획된 도시로 개념이 변천되어 왔다. 미국의 신도시는 대도시의 혼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강, 제철, 석탄 등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도시의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sup>95)</sup>

영국에서의 신도시개발은 주민들의 산업의 확장과 고용기회를 가짐으로 좀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과밀화된 대도시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신도시로 분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적절한 서비스 기능과 함께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도시센터는 세계의 신도시 개발이라는 책에서 광의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라는, 확대된 주거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기존 도시의 외곽에 개발되는 대소 주택단지도 포함된다. 협의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도시로 새로이 개발된 도시”만을 의미한다.<sup>96)</sup>

신흥 주거지역 혹은 신도시란 용어와 의미가 서로 달라서 다음과 같은 구비조건을 갖춘 경우 신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첫째, 개발 및 건설계획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경제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주택과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과 커뮤니티와 서비스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장할 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나 개발기구가 있어야 한다.<sup>97)</sup>

#### 나. 신흥 주거지역 유형

신도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글리게(J. G. Gliege)는 신도시(independent new towns), 위성도시(Satellite new town), 신시가(new town in town)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리핀(N. M. Griffin, 1974)은 좀더 세분하였는데 자유입지 신도시, 위성도시, 신시가지 성장거점 도시, 신산업도시 등으로 나누었다.<sup>98)</sup> 본 논문에서는 3유형으로 분류 기준을 입지적 조건과 소도시와의 관계와 성장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위성도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근교의 중소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95) 노유희, 신도시개발론 (서울: 박영사, 1973), 73-74.

96) Ibid., 76.

97) 박양우, “과천 신도시의 의의와 1980년대 도시정책 개발을 위한 소고”, 도시문제, 1981년 10월호.

98) 노유희, 신도시개발론, 73-74.

로 일반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나 소도시와 시가지가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주거, 상업, 농업, 공업 등 일부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예로는 부천시, 안양시, 과천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99)</sup>

둘째, 신흥 주거지역에서의 신시가지는 현존하는 도심부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주변의 근접지구에 안정을 꾀하며 주변의 주민이 도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변두리 부근에 대단위 주택을 건설하는 목동, 관악구, 잠실, 강남구와 같은 곳이고 상례라고 하겠다.

셋째, 독립적 신도시는 대도시 지역과 분명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대도시의 과잉된 인구를 수용하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자립적인 체계를 갖춘 도시로서 안산시, 대덕단지 등이다.<sup>100)</sup>

넷째, 성장거점 도시로서 한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그 좋은 예가 동해시이다. 그러므로 성장거점 도시는 지방의 중심부에 서게 되며 또한 주변 농촌과 상호보완적인 자기완결의 위치에 있다.

## 5. 도시화와 선교

### 가. 도시화와 선교방법론

도시선교는 이론들은 도시선교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으려 하여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 첫째, 성경적 도시선교론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도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20세기는 도시화 되어가기 때문에 도시선교가 긴급하다.

둘째, 교회는 먼저 도시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 교회를 변질시킬 것이다. 만약 도시가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도시의 유행을 따르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도시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었고 도시에 대처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의 갱신이 없이는 도시의 소망이 없다.

셋째, 도시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방법만이 도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교회는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예배와 봉사, 교제와 선교가 있어야 한다.

99) 강대현, 도시지리학 (서울: 교학사, 1981), 179-181.

100) 석천 이찬 박사 회갑기념 논집,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330-381.



넷째,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에 나타나 있다. 지상은 안정이 없고, 그 자체가 파괴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도시선교 연구에서 먼저 니스웨로 시작해야 한다. 니스웨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한 도시로 가인 이후 최대 아름다운 도시로였다. 막강한 군사력, 성벽길이 60마일, 성높이 100피트, 왕궁건립에 동원된 노예 10만, 12년에 걸친 공사 등으로 도시의 공공건물과 공원이 가히 세계최고급이었다. 그러나 니스웨의 부와 풍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요나는 이 성에 대한 전도를 회피했다. 여기에서 교회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세계에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사 43:10-12). 대도시가 도시선교의 전략지이다. 모든 국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정복해야 한다. 수도는 국가의 장래(운명)를 결정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덕에 서서 도시의 생사를 관망할 뿐이다.

도시선교의 문제점은 도시의 겉만 보고 도시의 넓이와 깊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인종차별, 부자와 권력자의 집단적 죄악, 억압, 착취 등을 외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이방 도시에도 관심을 가진다.

느헤미야의 도시갱신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시를 갱신한 모델 케이스이다. 도시갱신을 위하여 영적 갱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도시선교 전략에서 보면, 바울은 사업, 문화, 정치의 중심도시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선포요 사역의 핵심이며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또한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것을 강조하셨다. 즉 교회의 지상에서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나라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교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고 부름 받아 하나님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sup>101)</sup>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비유 중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모든 교회성장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합당한 좋은 토양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101)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민중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1988), 19. 박봉배 박사, 하나님의 나라, 주제해설 중에서 재인용.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씨를 뿌리기에 앞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교회의 주소와 사명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란 일정한 지역이라는 토양 위에 한 그루의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신약교회의 그림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젠킨스(D. T. Jenkins)의 말대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그 속에서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상황에서 종교적 도덕적 및 지적 배경의 전체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sup>102)</sup>

#### 나. 지역교회와 도시복음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은 대개 당시 문화를 주도해온 헬라문명의 중심지였으며, 교통이 편리한 세계 상업중심지였으며, 유대주의 중심지였다. 아시아지방에서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이몬이었고, 에베소와 같은 중요한 도시에서는 두 해 동안이나 머물렀으며(행 19:10)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뢰아, 빌립보에서 전도했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덴과 고린도 등지에서 전도했다.<sup>103)</sup> 즉 그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세 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의 신자들로 하여금 그 지방의 나머지 지역을 전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문화의 중심이며 인구가 많은 도시를 택한 것은 그 도시가 복음화 됨으로서 인근지역의 복음화를 부채질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었으며, 바울이 주로 로마의 행정적 속주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한 것은 한 선교사가 많은 선교지를 맡을 수는 있지만 결코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sup>104)</sup>

바울이 문화의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할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도시 생활의 편리함이나 많은 군중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가 복음화 됨으로 인근지역의 복음화를 부채질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은 그의 방문이 중요한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간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02) D. T. Jenkins, "A Message to Ministers about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Theology Today*, 1948 cited by Johannes C. Hoekendijk, 흘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26.

103) 임일식,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3), 48.

104) 신성종, 신약총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200.

바울은 선교의 전략을 가졌기에 전략적인 지점으로서의 수도나 대도시를 파고들었다. 전략적인 도시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sup>105)</sup>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를 받은 자로 활동했지만 그가 어느 곳으로 인도를 받았던지 언제나 중심지를 찾았고, 그 중심지를 붙잡고 그 곳을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은 정거장식 선교방법으로 중심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했다. 그리고 그 주변도시와 마을들에 대한 복음화는 새로 설립된 교회들에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던 장소에도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도시들은 로마행정과 희랍문화의 중심지들로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였고, 아덴은 그리스의 문화적 중심지이고, 에베소는 제국의 종교적 중심지이며, 그리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해서 도시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도시 중심의 선교전략을 가졌던 것이다.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다. 바울이 도시 우선으로 전도한 것은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 보다 개방적인 곳,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곳인 도시에 힘을 쏟은 것이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의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교회들의 전도활동에 의해 이차적으로 복음화될 수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단순한 이유로 선교전략상 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에 수용적인 주민들은 도시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는 선교자원의 높은 우선권이 있다.<sup>106)</sup>

그리고 도시마다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도시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저항적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각 도시의 정확한 윤곽이 파악되어야 한다. 즉 피부색깔, 문화, 언어, 및 종교에 따른 인종적 단위에 근거한 구분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를 성공적으로 그

105) 임일식,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연구", 52.

106) C. P. Wagner,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79.

린 사람은 도시전도의 중요한 열쇠를 이미 확보한 셈이다.<sup>107)</sup> 이것은 더불어 헌신적인 생활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 수많은 도시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인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방 약 300마일 되는 곳에 있는 크게 번영한 주요 상업도시인데,<sup>108)</sup>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산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주의적인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진취적인 교회,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교회, 돈에 인색하지 않고 자발적이며, 순종하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할 때 구제금을 보냈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한 첫 이방교회이었다(행 11:19-30). 이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한 후 13년 동안이나 충분히 선교사로 준비한 다음이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한 지방으로서 로마의 한 주였다. 갈라디아라고 명명된 것은 이곳의 거주자인 켈트를 따라서 그렇게 불려졌다.<sup>109)</sup> 이곳의 주민은 켈트 족이나 갈리아 족의 일파로서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호전적인 기질에도 불구하고 아민타스(갈라디아의 마지막 왕)가 죽은 후에는 로마의 한 행정구역으로 전략해 버렸다. 새 갈라디아 주는 갈라디아 전부와 이사우리아와 비시디아 등을 포함하였다. 또 이고이온, 루스드라, 데베, 안디옥, 사갈라수스 그리고 셀게 등이 포함되었다. 새 갈라디아의 수도는 안키라였다. 이곳은 황제숭배 사상이 극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신전이 헬레니즘적인 건축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여기에 유명한 안키라비문이 새겨져 있다. 갈라디아 주는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가 행해졌던 도시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남부의 중앙지역에 있는 한 도시이다. 루스드라의 주변은 비옥한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지조건이 상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아니고 다만 농경정착지에 불과하다.<sup>110)</sup> 루스드라가 아탈루스 왕조(BC 189-133)에 의해 로마에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루스드라를 로마의 요새지로서 식민지로 설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용사들을 이주민으로 옮겨놓았다. 따라서 루스드라는 부분적으로 로마화되었다. 또한 황제는 이고니온을 경유하는 간선도로를 루스드라에 건설함으로써 루스드라로부터 데베와 길리기아 관문으로 통하는 길도 나게 하였다.

107) Ibid., 180.

108) E. S. Moyer, 인물중심의 교회사, 광안전,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6.

109)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권, "갈라디아," 205.

110) W. Ramsey, 사도 바울, 박우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16.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는 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치게 되자 루가오니아 원주민들이 그들의 옛 신들이 현현했다고 바울의 일행에게 제사하려는 사건이 일어났다.<sup>111)</sup>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 새로운 교회는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sup>112)</sup>

남부 소아시아의 중앙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로서, 남부 아라톨리아의 중부지역에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한 도시다. 더베의 중심도시는 이고니온이지만, 이고니온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더베가 루가오니아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 도시는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 주에 속하였으나, AD 1세기에 더베는 일시적으로 안티오쿠스가 로마황제 클라우디스를 기념하여 이 도시의 이름을 Claudiaderbe로 붙였다.<sup>113)</sup> 바울은 더베를 두 번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얻었고(행 14:6, 20) 두 번째 여행 중에 길리기아에서 루스드라로 가면서 더베를 경유하였다.<sup>114)</sup> 더베 출신의 제자 가운데 바울의 선교지역에 많이 조력한 자는 가이오이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다. 현재는 터키의 도청소재지인 코냐 이나, 회람과 로마제국 당시에는 루가오니아의 수도였다. 이고니온은 광대한 상업도시였는데 이는 시리아에서 에베소와 로마에 이르는 대로가 이곳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비옥한 평야로 인해서 곡식과 과일 산출의 중심지였다. “세계를 보라, 그러나 특히 코냐(이고니온)를 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고니온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sup>115)</sup> 이와 같이 이고니오는 로마와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크고 부유한 도시였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많은 이교도들을 개종시켰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건축하여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교함으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 얻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저희에게 일을 위임하였다.

111) 행 14:8-12

112) 행 14:21-23.

113) 기독교대백과사전, 제4권, “더베,” 23.

114) 행 16:1

115) W. Ramsey, 사도 바울, 111.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대 비시디아 지역과 브루기아 지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아시아 남서부 호수 지방에 있는 도시이다. 안디옥은 알바취 평원이 내리다 보이며, 고원 위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적인 안티오쿠스의 본거지였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하면서 이 도시는 로마의 속주 갈라디아에 합병되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로마화과정에서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에는 셀루코스 시대에 정착한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희랍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였다.<sup>116)</sup>

마게도냐는 아가야 지방의 북쪽에 위치하는 지방으로, 주로 산악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옥한 평야도 많이 지니고 있다. 마게도냐를 통치하던 여러왕들 가운데에서도 영토 확장에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한 왕은 필립 2세와 알렉산더 3세이다. 그러나 마게도냐 마지막 왕인 페르세우스 왕이 BC 168년 퓌드나 전투에서 로마의 집정관 아이밀리우스 타우루스에게 패배함으로 그 위력은 수그러지고 말았다. 이때에 마게도냐는 네 개의 독립지구로 분할되었다.

마게도냐는 오랫동안 지도적인 헬라나라였다. 스토아와 에피쿠르스 학파가 마게도냐에 대표적으로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헬라어가 라틴어와 더불어 많은 동방의 로마 속주들에게 공용어로 쓰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헬레니즘 시대의 오랫동안 지도적인 지역이었던 마게도냐를 선교지로 택했다. 마게도냐의 주청소재지는 자유도시였던 데살로니가이다.

바울은 아시아와 서양을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하여 네압볼리에서부터 빌립, 데살로니가 등으로 전도여행을 했을 것이다(행 16:11-12).

네압볼리는 빌립보 시를 위한 항구도시였다. 빌립보는 중요한 도시였고, BC 42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sup>117)</sup> 그래서 로마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이곳의 종교는 여러 신들과 함께 황제숭배 사상 등 복합종교가 있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보아 유대인사회가 아주 작은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8)</sup>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않고 빌립보의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관습에 매료된 비유대인들이 기도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장소로 갔던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염색으로 유명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116) 행 13:14-43

117)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70.

118) Ibid., 203.

루디아를 만났다. 유럽 최초로 가정교회가 바로 빌립보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sup>119)</sup>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눈에 띄게 스스로 존속한 교회였으며 그 교회 자체 내의 지도자들 아래에서 성장한 교회로서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다. (에바브라를 비롯하여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배출됨). 에바브라 디도 외에 바울은 클레멘트를 언급하는데(빌 4:3), 그는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에 로마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살로니카로 알려진 마게도냐의 주요도시이다. 이 도시는 칼시더시 반도 서쪽에 있는 현재의 사로니카 만에 위치했으며 처음부터 마게도냐의 주요 항구였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제2구역의 수도로서 BC 148년에 마게도냐의 속주가 되었고 주의 수도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중해 동부의 모든 주요한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에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을 쫓았으나 가장 교육받지 못하고 가장 천하고 미신적인 형태의 이방 종교에 예속되어 있던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광적이 적대감을 나타냈다(행 17:5-9). 이들을 통한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이 좋았던 데살로니가를 바울은 떠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가로막기 위해 통치 세력에 의해 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sup>120)</sup>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핍박으로 인하여 약 한 달밖에 지속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도시에는 견고하게 조직된 교회 하나가 생겼던 것이다.

베뢰아는 풍요한 생활을 하는 헬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도시이다. 베뢰아라는 말은 군청소재지를 부를 때 쓰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로마를 향하는 간선 도로상에 있다. 비옥한 토지로 인하여 농장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이곳의 생활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농부의 성실로 특징지을 수 있다.

1세기에는 이곳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을 논하였다. 유대인과 헬라의 개종자들과 두 민족의 여러 남녀들이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는 베뢰아 사람들의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고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21)</sup>

119) 행 16:6-40.

120) W. Ramsey, 사도 바울, 217.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나 남쪽 대부분의 지방을 차지하였던 로마의 속주였다. 아가야 지방은 데실리 근처에 있는 것으로서 펠로폰네소스의 북부 해안지방에 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지였던 아덴과 고린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덴은 당시 로마세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 아덴은 로마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 그러나 이곳은 우상의 수가 3,000이나 되는 곳이었다. 바울은 그 우상들로 인해 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의 체계를 따랐다.<sup>122)</sup>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고라(agora: 집회장, 광장)에서, 아덴의 학당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연설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의 회의 앞에서 한 바울의 진지한 증거에 대해서 몇 사람이 믿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의 있었는데<sup>123)</sup> 이들이 아덴의 첫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아덴에 전도의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아덴은 기독교선교의 중요한 요지가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는 고린도 지협에 있어서 폭넓은 해운망을 통해서 제일의 상업도시로 부유했으며, 로마의 속주 아가야의 수도였다. 고린도는 도자기와 청동기구로 유명하였다. 또한 고린도는 로마와 동방 사이에 있었던 고로 로마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지닌 위대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해상교역으로 인하여 텍사스 주의 휴스턴과 같이 고린도는 인구가 많고, 돈이 풍부하였다. 그 결과 심한 부도덕의 광장이 되어 버려서 선술집이 즐비하여 매음녀들, 정남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란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또한 이곳은 인구가 이동이 매우 급속한 관계로 헬라 남부전역을 대상으로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그러므로 파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고린도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립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다.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다.<sup>124)</sup>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글라우도에 의해서 로마에

121) 행 17:10-15.

122) 행 17:16-17, 23.

123) 행 17:34

124).) E. F. Harrison,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자,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58.



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자들로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바울과 동역하였고, 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개심자로서 유명한 전도자가 된 아볼로와 같은 명성 있는 자들을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다.

주전 8세기에 로마인들은 서부 이탈리아의 티베르 강 언덕들에 정착한 작은 민족이었으나 점차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전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대서양에 접한 유럽 대륙에 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정복과정을 통하면서 문명화되었다.<sup>125)</sup> 이와 같은 영토확장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BC 63년경에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왔고, AD 6년경에 로마 제국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로마의 도시화과정은 농업위주의 군사적 민족에서부터 희랍의 폴리스 형태를 지닌 도시문명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 사회제도의 기본단위는 씨족공동체였다. 그러므로 각 씨족들은 피지배시대의 고난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자신들의 고유한 제의들과 전통들을 지녔었다. 이러한 씨족들 외에도 로마에는 가지각색의 클리엔테스(Clientes: 예속인)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상전에게 충성하고 그에 따른 조력과 원조를 받았었다. 씨족제도 아래서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가부장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나 군주체제로 들어가면서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로마의 종교생활은 태고부터 본질적인 체계를 이루어왔다. 로마의 종교에 대해서 라테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종교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행위의 일부분이라 하겠다.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로부터 그들 스스로가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의식 및 제전, 각종 의식들을 단정하고도 충심으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의 신탁들을 해석하고 관찰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로마도시들의 사회적 상황은 무역과 교통이 융합으로 부요하고 유복하여 제국의 도시들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다른 도시들보다 뛰어나기 위하여 희랍의 건축양식의 요령을 따라서 넓은 장소에 신전을 세우고 수도 시설을 하며, 목욕탕을 만들고 극장과 경기장을 마련하기에 분주했다. 로마국가의 우편제도는 공무를 위해서만

125) Harry R. Boer 단편초대교회사, 박성호 역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16.

사용되었고, 개인이 서신은 지정된 장소에 빨리 전달해 주는 여행자들의 여행하는 길에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제국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행정은 지방관청에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렇지만 최고의 권력은 황제에게 있었다. 어린이들의 교육도 희랍의 선례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소년들이 희랍세계에 정통하도록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sup>126)</sup>

---

126) 정희찬, “바울의 선교전략과 한국교회의 선교방향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선교 신학전공, 1996), 26-36.

## 제 4 장

## 도시지역 사회의 선교방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연구

## 제 1 절 선교와 봉사에 대한 연구

선교는 이제 교회의 보편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신학자 바그너(F. Wagner)는 기독교선교는 과거나 현재나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 역시 이에 대해 예외는 아니었다.<sup>127)</sup> 독일의 신학자 프라이타그(W. Freytag)도 과거에는 선교가 문제를 가졌으나 지금은 “선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sup>128)</sup> 역사상에 있어왔던 많은 선교의 배경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들이 뒤따랐다.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선교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선교의 개념을 정립해야할 필요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1.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선교는 영어로 ‘Mission’이다. 이 말은 라틴어 “Mitto”에서 왔는데 이는 헬라어 “ἀποστέλλω”와 “πέμπω”에 해당한다.<sup>129)</sup> 이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여행하면서 그를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지면 신앙을 다른 공동체에 보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 된다.<sup>130)</sup>

선교사(Missionary)는 13세기 카톨릭수도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16세기와 17

127) 전호진,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군진신학” 군진신학 (서울: 군복음화 후원회, 1985), 89.

128)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15.

129)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1964), 398-406.

130) George Arthur Buttrick et al.,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Y: Abindon Press, 1962), 404.

세기에 이르러 카톨릭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개신교선교와 선교사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개신교에서 이 선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독일의 선교학자 바르넥(Warneck)이다. 그는 선교를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다.<sup>131)</sup> 현대에 이르러 선교의 개념에 대한 성경적 개념형성에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1952년 독일의 윌링겐에서 모인 선교대회에서 이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선교적 임무란 주제에 대해 선교에 대한 교리는 교회일치,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세계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선교수행에 있어서 교회연합을 강조하고 선교의 주역은 서구의 교회와 함께 비서구의 신생교회들도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sup>132)</sup>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 즉 "Missio Dei"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게 된다.<sup>133)</sup>

"Missio Dei"에 대한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된 선교대회는 1968년 읍살에서 열린 WCC의 4차 대회이다. 이때는 증거보다는 봉사를, 공존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사회주의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 사회·정치적인 선교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sup>134)</sup> 그러다가 1975년 나이로비 선교대회와 1983년 밴쿠버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선교 관점에서 교회중심 그리고 말씀중심의 선교운동으로 바뀌게 된다.<sup>135)</sup>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에서는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되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선포하는 일"이라고 했다.<sup>136)</sup> 여기에는 교회 내외에서 행해지는 설교, 성례, 봉사 등의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교의 선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선교개념에도 두 가지 조류가 있다. 첫째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달을 위주로 하는 선포의 선교이고 둘째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듣는 사람을 확보한 다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설득의 선교이다.<sup>137)</sup>

131) 전호진, 선교학, 18.

132) 김명혁,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의 변천과 그 방향", 신학지남 (1979 봄), 115.

133) Ibid.

134) 전호진,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론 비판", 개혁신학 IV, 102.

135) 김순일, "세계선교," 교회연합신보, 1983년 12월 11일자, 8.

136) Peter Beyer Haus, Mission: Which Way?, 김남식 역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5), 129.

137) 전호진, "복음전도의 선교와 사회변혁의 선교",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엠마오 출판사,

후자 선교론의 대표자가 미국의 맥가브란 교수이다. 현재의 어떤 기독교인의 집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억(이제 잠시 후면 40억에 이름)의 인구 전부는 반드시 현대적 기독교 선교의 특수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sup>138)</sup>

이러한 선교관에 근거하여 교회성장학을 발전시킨 맥가브란의 선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충성을 바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문화권을 초월해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고무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로서 받아들여 주 예수그리스도의 소유인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들이 되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도와 정의를 실천에 함께 사역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sup>139)</sup>

#### 가. 에큐메니칼 선교와 현대의 복음주의 선교

20세기 기독교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 중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일 것이다. '위대한 세기'인 19세기에 서구교회는 전세계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서구교회는 분열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선교에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연합 운동이 일어났다.<sup>140)</sup> 교파간의 대화가 기적적으로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초부터 강하게 일기 시작한 에큐메니칼 교회운동 때문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이 인정되는 것이다.<sup>141)</sup>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탄생시켰다.

WCC는 7년마다 각국의 회원들이 모여 총회를 가지는데 이때 스태프들이 해온 일을 보고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다. 1954년에 에반스톤에서, 2차 총회를 가졌고 3차 총회는 1961년 뉴델리에서, 4차 총회는 1968년 읍살라에서, 5차 총회는 1975년 나이로비에서, 6차 총회는 벤쿠버에서 가졌다.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종적, 사회적 모든 장벽이 제거된 통일된 세계

1983), 116-117.

138) Arthu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교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50.

139) Ibid. 계속해서 에큐메니칼 선교의 개념을 다루고 난 후 복음주의선교의 개념을 추가로 다룰 것임.

140) 전호진, *선교학*, 15.

141) Ibid., 179.

였다.142)

여기서 WCC의 선교개념을 알기 위해서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크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면 1910년 세계적 최초 선교대회인 에든버러 대회부터 1980년 멜버른 대회까지 국제선교 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시대를 잘 반영하여 동시에 그 시대의 유명한 신학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143)

먼저 에든버러에 나타난 선교개념은 19세기 전통적 선교개념과 큰 차이 없이 3차 원리에 의한 교회설립과 개인 영혼구원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교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144) 그러나 1952년의 Willingen 선언 이후부터 “선교”란 말 자체가 전통적인 선교개념인 영혼구원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145)을 선교라 규정하였다. Willingen 선교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교란 주님의 말씀 대한 복종만이 아니며, 또 회중의 모임이 대한 헌신만이 아니라 선교란 모든 구속받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의 파송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선교운동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 그 근원이 있다.146)

Willingen 이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독일의 George F. Vicedom은 선교란 “교회의 선교도 될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선교도 될 수 없고”147) 오직 그의 선교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주의 선교론은 ‘하나님-교회-세계’의 도식 위에서 있는데 새로운 선교론은 ‘하나님-세계-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교회는 더이상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교회는 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148)

142) Peter Beyer Haus, “현대 선교신학의 동향과 방향,” 크리스찬 신문, 1984년 6월 23일자, 2.

143)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정음출판사, 1983), 32.

144) Ibid.

145) Rod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0), 33.

146) Norman Goodall, Mission Under the Cross (London: Edin House, 1953), 189.

147) George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St. Louis: Concordia, 1965), 6.

그러나 급진적인 이 선교개념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복음전도로서의 선교운동이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호켄다이크의 "Comprehensive Approach" 전도의 개념에 의하여 1968년 WCC 4차 총회인 읍살라에서 선교의 목표가 "Humanization"으로 규정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이라고 생각해 왔다.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는 진실한 인간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의 주요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성을 지향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sup>149)</sup>

선교의 목표는 '이방인의 회심'이나 '교회수립' 또는 '교회확장'에 있지 않고 기독교 세계나 특정교파 교회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선 저 너머에는 세계의 인간성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읍살라 대회에서는 "새 인간성 창조"가 선교의 목표이다. 영국의 존 테일러는 이러한 인간화로서의 선교개념은 산업화, 도시화, 도덕의 타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극구 칭찬했다.

1972년 방콕에서 열린 선교대회 주제는 "Salvation Today"였는데 방콕의 선언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갱신"의 제3분과는 "해방"을 첨가하여 선교의 목적을 정의했다. 이때부터 WCC의 좌경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는 해방신학이 신학계와 선교계를 지배하였던 때이기도 하다.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 WCC 대회 주제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결국 해방신학이 세계교회들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5년 후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주제로 정치적 탄압과 억압문제를 교회의 선교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다.<sup>150)</sup> 선교가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로 나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에큐메니칼 선교관은 옳은 것인가?

결국 에큐메니칼 선교의 주제는 인간화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지상적 임함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이론의 배경에는 역사적 발전론 즉 헤겔과 마르크스적인 발전론의 전제 위에 세상이 점차적으로 희망적으로 변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결국 WCC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148) 변선환, 오늘의 선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감리회, 1985), 17.

149) W. C. C., The Church for Others (1968), 78.

150)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68.

것이 드러난다. 이러한 좌경화의 반대에서 있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은 선교의 대위임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반전을 시도했다.

첫째, 복음주의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을 복음전도의 지역적 확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교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151)</sup> 둘째, 하나님의 개념이 세속화, 역사화되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비신성화한 결과 세속의 역사를 신성화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셋째, 선교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회론이 성경에서 벗어나므로 결국 선교에도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정하면서 복음전도의 절대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선교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선교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선교는 분명히 복음주의적 선교관을 가지고 해야 한다.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의 선교를 생각하기보다 순수한 복음전도 즉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주를 믿어 기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나. 선교적 봉사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

그동안 한국교회에 익숙한 선교방식은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원심력 선교방식이었다. 이 선교모델은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선교방식이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며 이방 땅으로 파송하셨던 그 모델이며(창 12:3), 신약에서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행 9:15)으로 사용하시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통해 선교여행을 하게 하신 그 모델이었다. 물론 선교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지 않을 때 강제로 민족을 끌으시는 디아스포라 방식을 통해서라도 선교하는 모델도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벵트 성클러(Bengt Sunkler)는 구약성경에서 주요한 선교 전략은 이스라엘이 빛을 비추어서 이방을 이스라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지만 신약성

151) 정진경, 신학과 교회, (서울: 성광문화사, 1977), 137-138.



경에 와서는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외향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화란의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위의 사상을 이어서 구약의 힘을 “구심력(Centripetal)”, 신약의 힘을 “원심력(Centrifugal)”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위의 두 가지 선교의 동력이 구약과 신약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항상 작용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나라의 중심으로 서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선교의 비전이 일차적으로 구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sup>152)</sup> 바빙크(J. H. Bavinck)는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난 선교의 개념에서 구심력의 요소를 구약의 예언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방인들이 이 빛을 향하며 빛에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153)</sup>

#### (1) 도시지역 사회선교의 중요성

도시지역 사회선교에 있어서 도시선교의 문제를 거론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도시 변두리에 기거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상황에 따른 접근은 이 도시지역의 변두리에 자리한 산업공단이나 새로운 주거지에서 출발되어 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회참여 중심의 급진적인 복음운동이었던 도시 산업선교에서는 복음을 단순하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의 내면적인 모든 문제와 환경 그리고 외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삶 전체로 부딪히고 참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신의 주권성, 계시, 세계와 삶, 죄와 용서, 인간과 교회, 성서 등이 모든 것이 허공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이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인간과 부딪칠 적에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구조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경험되고 해석되고 또 사건화되는 살아있는 과정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sup>154)</sup> 여기서 외적인 상황을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곧 “장(field)”이라고 표현하는데 커트 레빈(Kurt Lewin)은 이를 “생의 공간(life spa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인(self)과 인간(people)과 환경

152) W.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73. 출 19:3-6; 사 42:6; 49: 6, 11, 12; 시 67:1-2.

153) J. H. Bavinck,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5), 65-66. 속 8:23; 사 55:5; 요 13:35; 뵤전 2:15; 고전 10:32, 33; 14:23; 살전 4:12; 5:15; 골 4:5; 딤후전 3:7; 엡 4:15-16.

154)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13.

(environment)이 서로 얽혀 있는 삶의 공간이며 숨쉬는 관계를 맺는 한계상황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155)</sup>

이런 영향은 해방신학의 유입과 함께 개인의 내적인 구원과 변화보다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항하는 사회, 정치투쟁의 방향으로 변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도시 산업선교는 급격한 산업화 또는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신학적인 근거에서보다는 역사의 요청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교에 임해왔다. 도시 산업선교는 도시 산업화과정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전통적 선교방법과는 다른 내용과 방법이 모색되어 졌으며 선교의 현장도 교회 안이 아닌 교회밖에 민중들의 삶의 현장(field)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시 산업선교가 한국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으로는 첫째는 선교의 장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 교회 선교활동은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선교대상이 소위 공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산업근로자들에게 강조를 두게 됨으로서 선교대상이 단순히 개인 또는 사람이란 데서 사회제도 혹은 조직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sup>156)</sup>

둘째는 선교내용의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복음선교 내용은 구원에 있다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요, 이를 구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구원이란 구약시대에는 부정과 압제자로부터 해방이며 신약시대에는 세상의 악마적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표현하고 있다. 산업선교 실무자들은 선교내용은 개인구원뿐 아니라 사회구원에 강조를 두고 있다.<sup>157)</sup> 그러므로 도시 산업화과정에서 생겨나는 구체적 사건과 문제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교활동은 한국이 급격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문제와 도시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 선교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생각할 때 종래의 교회중심적인 선교활동에서 갖던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보고 인간화를 선교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의미를 찾아 볼 수 있겠

155) Ibid., 16.

156)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산업선교위원회, 교회와 도시산업 선교회, 275-276.

157) Ibid., 279.

다.158)

셋째는 선교방법의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에 이르러야 급격한 산업도시화 현상에 따라 산업사회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향한 목회적 형태에 대하여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나 형태가 없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당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선교 실무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만나고 연구하는 가운데 경험에 근거를 둔 방법과 일정한 목회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바로 한국교회가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선교방법이요, 목회형태로서 종래의 개교회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하여 오던 것과는 판이한 것이었다.159)

## (2) 총체적 선교방식

세계복음주의 협의회(WEF)는 총체적 선교개념을 '로잔Ⅱ 대회'의 「마닐라 선언문」에서 “대도시선교(Urban Mission)”이라는 항목을 통해 실천적으로 제시했다. 「마닐라 선언문」은 바로 이러한 대도시사회야말로 총체적 선교개념에 따른 총체적 선교전략이 요구되는 선교현장임을 천명한다.

1900년도에는 세계인구의 9퍼센트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50퍼센트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주'라고 불린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선교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한편 도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민족이 우리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민족의 장벽을 분쇄하는 우주적 교회들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 많은 도시 주민들은 가난한 이주민들로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아울러 우리 하양교회와 같이 신흥도시화하는 교회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사역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도시 빈민이나 농어촌 지역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160)

1974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에 관한 국제대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대회에서 채택한 「로잔언약」에 포함시켰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8) 고훈, “산업인을 위한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원, 1987).

159) Ibid.

160) “마닐라 선언Ⅱ”, 복음과 상황, 1991년 1. 2월호, 137.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모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면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왕왕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 전도와 사회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161)

한마디로 「로잔언약」은 기존의 전통적 선교개념인 '교회의 선교'를 총체적 선교'란 개념으로 한층 더 발전, 강화시킨 것이었다.

1989년 7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로잔Ⅱ 대회'로 모인 복음주의자들은 「마닐라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선포함으로 개인적, 구조적인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 참된 선교는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불의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선교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162)

로잔언약은 전도와 사회참여는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 교리,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163) 바른 사회참여는 먼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로잔Ⅰ'과 '로잔Ⅱ'사이에 제3세계 복음주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WEF)의 총체적 선교개념은 복음주의진영의 선교의 기초를 놓았고 이에 맞는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교회의 사회에

161) "The Lausanne Covenant", Lausanne Occasional Papers No. 3 (Minn: World Wide Pub., 1975), 10-11.

162) "마닐라 선언 Ⅱ", 복음과 상황, 133.

163) 조종남, "복음주의의 현대적 고찰", 빛과 소금, 1987년 5월호, 90.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이다.

니켈리는 바빙크의 주장에 근거하여 사람의 전 존재, 즉 그의 영혼과 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계시를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철학은 언제나 경험론이나 합리론 유물론이나 유심론의 극단속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다. 그러나 그 영혼은 심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이런 본성에 의해서 영혼은 필히 몸 안에 서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sup>164)</sup>

칼빈 또한 영육 양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선 순위의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제1차적 좌소는 정신과 심정 가운데 있고 영혼과 그것의 여러 능력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어느 부분도 심지어 육체조차도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은 없다”<sup>165)</sup>라고 하였다.

인간을 ‘전인’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각 구성요소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연결되어 각 요소 중 그 어떤 것도 무시되지 않고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난’, ‘질병’의 경우나 실직, 노숙 등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간을 ‘전인’으로 보게 될 경우 이 문제는 다분히 구체성을 띄게 되어야 한다. 단지 회심을 위한 접촉점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넓은 의미에서 인권 보호활동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인 것이다.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선교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본다면<sup>166)</sup> 넓은 의미에서 인권보호 활동은 구속사 속에서 일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sup>167)</sup>

#### 다. 선교적 봉사방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화목자의 임무를 맡기시었다. 우리들의 생활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의

164)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 H. Kok, 1928), 521. 니켈리, 성경에서 본 인간, 이승구 역(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3), 52에서 재인용

165) Calvin, I. X. V. iii.

166) 게오르크 F. 휘체돔,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9.

167) 조종남,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로잔 세계복음화한국위원회 (서울: IVP, 1991), 39.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자의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168)

### (1) 선교적 봉사방법

교회가 선교적 봉사를 지역에서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교제의 차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이룩하려 할 때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기지가 되며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169)는 것이다.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서 취급되면 두 개념 다 불완전하게 된다.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서 말해져야만 하고 그때 비로소 바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170) 곧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한 교회의 두 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여서 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흩어져서 하는 일에는 미흡하였다.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교세확장에 전념하였을 뿐 이웃과의 교제에는 소홀하였다. 기독교의 초창기나 한국선교 초기를 보면 복음이 소외된 자들에게 접촉되어졌고 그 결과 오늘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때에 오늘의 소외 계층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는 미래의 교회에 거두어질 열매들이다.171)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가져야 할 때이다.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교회와 세상은 역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선교는 사명으로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선교(mission)의 뜻은 본래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의지를 구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음'을 의미한다.172)

선교라는 말이 교회의 용어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16, 7세기에 있어서는 선교의 의미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원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173) 이와 같은 선교의 개념은 서구의 기

168) 이계준, 74.

169) 박근원, 교회와 선교, 77.

170) Ibid., 133.

171) Ibid., 77.

172) 최재원 외, 319.

독교생활과 문화를 이방나라에 옮겨 심는 모습으로 나타나 선교는 서구의 피선교지의 예속화, 식민지화되는 폐단을 가지고 왔다.174)

이와 같은 선교의 개념은 영혼구원만을 전통적으로 전도라 생각하던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여 주었다. 그 결과 선교를 타문화권 전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도와 사회봉사를 선교의 개념으로 보는 자들이 복음주의 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175)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복음주의는 선교를 전도와 동일시하여 영혼구원을 잘 하지만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느린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봉사에서는 잘하지만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다”176)라며 전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세상과 사회문제에 대해 소홀히 대해왔던 복음주의신학은 선교를 전도와 사회봉사로 생각하게 되었다.177) 한 사람의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질 때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모여서 선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 동참하는 흠어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178)

흠어지는 교회, 흠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흠어져야 하는가? 교회를 제도적으로 상정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교회의 현주소는 지역사회이다.179) 그러므로 교회는 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 (2) 목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봉사와 복음화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선교적 차원의 봉사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할까?

첫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라

173) Ibid., 319.

174) 박근원, 교회와 선교, 184-187.

175) 전호진, 선교학, 19.

176) J. Herbert Kan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ook House, 1981), 144.

177) 전호진, 선교학, 21.

178) 은준관, 교육신학, 184.

179) 이계준, 73.

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큰 목적은 복음전도의 목적이요, 그 다음은 지역공동체를 하나님의 창조명령(창 1:28)에 의해 교회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선도가 되게 목회해야 한다. 도시화현상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그 지역대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각해지면 당연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며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이 짝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한국사회는 지난 25년간 개발(development)과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명목으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치변동에 따라서 모든 사회제도적 변혁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극도의 이기주의, 과열된 경쟁주의, 편법주의, 불신풍조 등의 가치관의 혼잡과 그에 따른 행동규범의 무질서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무질서의 행동규범으로부터 파생된 사회 병리 즉 개인적 병리는 심신장애, 중독, 자살, 도박, 범죄, 청소년 비행<sup>180)</su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프란시스 웨이퍼(Francis A. Schaeffer)는 그의 저서 「Death in the City」에서 현대를 사랑과 미와 의미의 결핍으로 굶주림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하비콕스(H. Cox)가 말했듯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도 익명성(anonymity)이란 도시의 특징 때문에 개인의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적 병리현상은 개인 병리와 더불어 지역병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속한 병리적 현상으로는 가정 파괴, 가정 결손, 사별, 이혼, 가출, 그리고 생활기능의 장애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81)</sup>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선교 실천전략을 세워가는 목회를 해야 한다. 도시화 현상 속에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상은 도시의 세속화이다. 아울러 농촌의 황폐화이다. 도시가 번영과 거대화를 향해 질주하는 것과 반대로 농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다. 오래 전 인간이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최초의 사회적 격변기를 경험했고 수세기 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제2의 격변의 물결이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제2의 물결이 핵가족의 등장, 남녀역할의 변화, 도시화, 관료적인 사회구조, 대량교육 형태, 집중화, 분업화, 평균화, 동시성 등의 특성을 가진 사회로 와서는 완전히 이 사회에 새로운 구조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로 나타난 고도의 Hi-Tech

180) 이규환, 지역사회의 개발과 이해, 25.

181) Ibid., 138.



혁명(첨단산업 혁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제2, 제3의 물결 속에 종래의 가치관이 서서히 붕괴되고 윤리도 무너지고 가족구조도 변화되면서 실존적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잘 읽으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목회를 할 때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장

## 하양교회의 지역사회 선교적 봉사

## 제 1 절 하양교회의 주변상황

하양교회가 속해 있는 경산시 하양지역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선교적 대책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그림 1〉 경산시 하양의 지리적 위치<sup>18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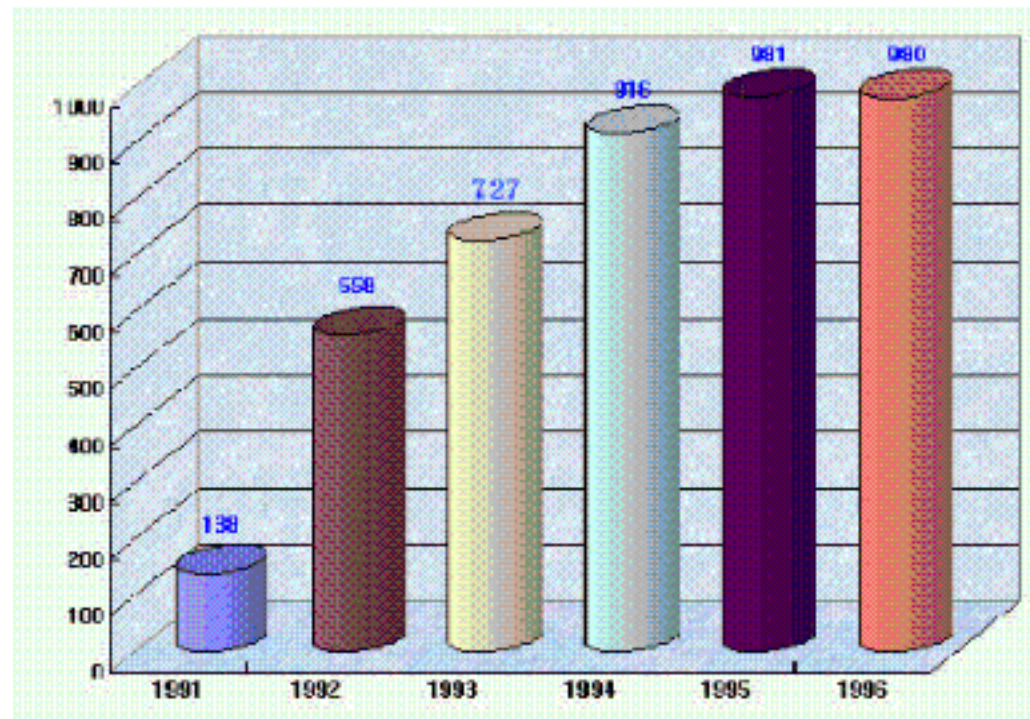


182) <http://kyongsan.kyongbuk.kr/index1.htm>

〈표 5〉 경산시 행정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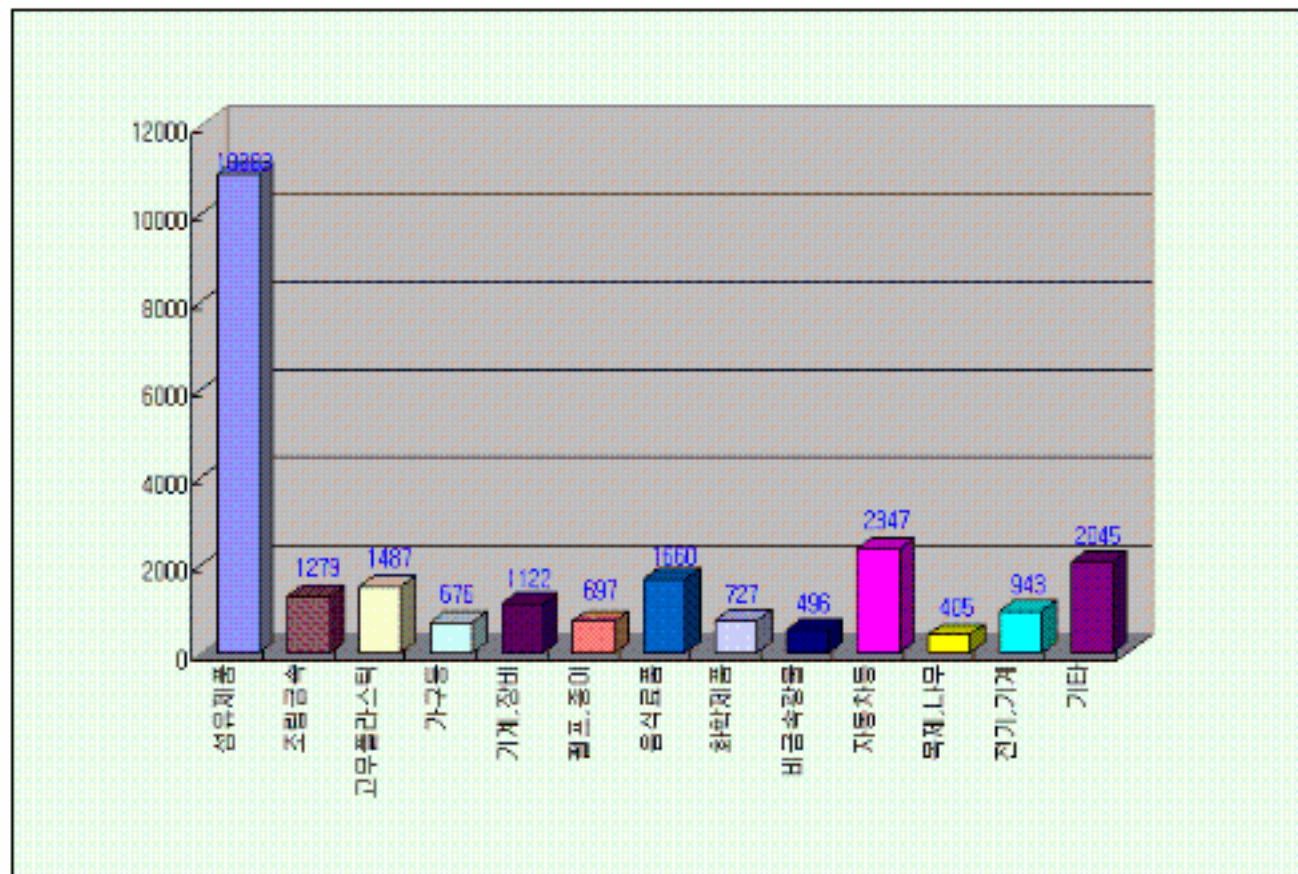
읍면동별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계
시	0	0	0	0	0	1
읍	1	1	0	0	0	2
면	0	0	1	1	1	6
동	0	0	0	0	0	6
리	0	0	0	0	0	28
통	28	43	25	21	31	213
반	16	25	14	16	20	137
자연부락	0	0	0	0	0	170
면적구성비	253	309	92	107	84	2,086
행정	39	59	52	31	42	358
계	48.65 /11.8	46.0/11.2	47.88 /11.6	22.04/5.4	79.39/19.3	411.36 /100.0

경산 하양지역은 인구분포는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도·농 복합형도시로서 주거·교육·산업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인구와 주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수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다.<sup>183)</sup>

〈표 7〉 인구증가율<sup>184)</sup>

183) Ibid.

184) Ibid.

〈표 8〉 경산지역 주요산업 분포도<sup>185)</sup>

## 제 2 절 하양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안의와 선교사의 위대한 희생적 선교활동이 결실을 보게 되어 1909년 5월 9일 하양교회가 창립되었다.

그 당시 하양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분을 전도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현두웅, 김처진, 현기운, 이도인이다.

당시 교회를 설립한 안의와 선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 신앙을 지도할 수 없는 형편이라 성도들의 신앙은 어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때이다.

그후 방혜법 선교사가 수시로 순방하여 지도하였고(1919-1920) 그 다음에는 위철지 선교사(1920-1922)가 사역하였다. 그때 이규완 장로를 장립하여 당회가 조직되었고, (1921년 1월 20일) 초대집사들을 세웠으니 김학규, 유수현, 황주선, 황정순, 최정술 등이었다.

1921년 이규완 장로가 장립받아 당회가 조직되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하여 1922년 말경에 조기철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는 활기를 띠려고 했으나, 일제의 침략으

<sup>185)</sup> Ibid.

로 신사참배를 한국교회에 강요하게 됐으니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다.

드디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 밖 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되어 일제의 간섭을 받은 홍기택 목사가 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총회 개최 다음날인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40분 교회당 안팎에 수백 명의 일본경찰이 동원된 상태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됐다.

그후 교회는 시련을 맞게 되고 남자교인들은 전시동원 체제의 형편인지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이리저리 흩어지고 부인 집사들 몇 분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던 중에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원상으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기독교청년회가 일어나게 되었고(1947년) 구역예배가 시작되었고(1949년), 교회 주보가 처음 만들어지기도 했다(1950년).

바로 그 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남침했다. 6·25사변 때 교회는 또 한번 진통을 겪게 된다. 그래도 목사위임과 장로장립이 있었고(1952. 10. 21) 그후 하양읍내 중앙고지 금락동에 교회부지를 마련하고(1952년) 4년 후 마련된 부지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이다(1956년).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하게 됐으며 총회 만 교회운동으로 교동기도실을 개척교회로 자립운영케 했고(1975년) 대학부가 조직됐으며(1966년) 남전도회가 창립됐으며(1981년), 교회부설 유치원이 창립됐으며(1982년) 22년간 사역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1987년) 새로 부임한 김형국 목사(1988년 2월 25일)는 30대의 젊음과 믿음으로 오랫동안 침체된 교회를 위해 기도와 전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헌신케 됐다.

교육관건축을 두고 기도 하다가 교회당을 다시 신축하게 됐으며(1989. 4. 7) 예배당을 신축기공한 후 1년 6개월만에 신축예배당(건평 750평)에 입당하게 되었고(1990)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위원회가 발족되어(1993) 지금은 국내외에 45개 처에 협력 및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부활동산을 구입하고(1993) 배움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 장학위원회가 발족되고(1997) 2000년이 시작되면서 1, 2부 예배로 나누어 집회를 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 2. 하양교회의 목회분석

### 가. 교역자의 문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떼를 먹이는 일을 위해서 부목자(undershepherds)를 지적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후 교회를 위임받은 목양자요, 말씀의 봉사자이다. 그 목사의 지도력은 교회의 공식에서 으뜸을 차지하게 된다. 고로 목사는 개체교회 성장의 열쇠가 되고 모든 책임의 수반이 된다. 그러나 본 하양교회는 92년 동안 많은 목회자가 사역하면서 다양한 교역이 실시되었던 교회이다.

선교초기에는 선교사(안익와, 방혜법, 위철지)들이 뜨거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며, 많은 교역자들이 사역했고 위임목사 6번째로 사역케 되니 감사할 따름이다.

### 나. 평신도지도자의 부족

오늘날 본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적인 낙후성, 생활과 농사 등으로 힘든 교우들<sup>186)</sup>과 타락한 세례교인들과 어정쩡한 상태에 급급한 교인들이다. 이는 모두 제자도(discipleship)와 상관없는 교인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평신도를 발견하여서 그들의 독특한 은사를 십분 활용하도록 돕는 용병술이 있어야 하며 목사 혼자 독주(run the whole show)하는 폐단을 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인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평신도, 곧 교회의 주체를 선교의 현장으로 끌어내어 훈련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문제는 훈련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부재가 속히 시정되어야 할 의제이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누구이며 무슨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성경의 조명 아래 일관성 있게 배우지 못했던 본 교회의 실정도 곧 필자의 소명을 일깨우는 나팔소리다.

### 다. 상호신뢰감 상실과 친교의 결핍

친교(koinonia)는 전도(kerygma), 교육(didache), 봉사(diaconia), 예배(prosquneo)와 함께 교회의 5대 사명 중 하나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요소 속에도 분명 친교가 큰

186) Harold Fickett,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예수선교 문서선교회, 1979).

몹을 차지하고 있다.187)

하양교회는 불행하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의 분쟁은 없었으나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6-25사변을 거치는 동안 성도간에 또는 교역자와 성도간에 상호 신뢰감이 떨어졌고 사랑의 친교가 결핍됨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일단 안정과 믿음과 사랑이 싹트게 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사랑과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있음은 새로이 신흥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의 메마른 생태와 함께 고착되어갈 여지가 있을까 두렵다. 고로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도를 속히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은 제자의 도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과 열매를 맺고 있는 실천적인 삶을 제자의 표식이라고 증언한다.188)

#### 라. 성령의 결핍

에드윈 오르(J. Edwin Orr)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 부흥은 복음적 각성189)이며, 신약교회 부흥처럼 성령의 운동력은 교회생명의 주체190)이다. 곧 교회성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를 하나님의 사역(God's ministry)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익명의 촌락지역이 도시화개발로 말미암아 도시교회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교회는 모든 인본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시의 특성 곧 익명성, 실용성, 기동성 등의 난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폭발의 강한 역사를 갈망케 되는 것이다. 이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도움으로 세력을 얻는 것이며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 지난날의 아쉬움을 떨쳐 버리는 열망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다.

187) 행 2:44-46; 4:32-35; 20:1-12; 마 4:23-25; 24:12.

188) 요 8:31-32; 13:35; 15:1-8; 행 2:42-47.

189) Donald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187-88

190) 행 1:4, 8; 2:1-4; 눅 4:6; 교전 3:5-9.

## 제 6 장

## 하양교회의 선교적 방법에 관한 연구

## 제 1 절 지역복음화를 위한 목회사업

와그너는 「Your Church can Grow」 11장에서 “미국에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일곱 번째 - 마지막 - 요소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라고 말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제일 마지막 요소로 보았지만 필자는 교회성장에서 우선순위 결정이 제일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즉 교회가 복음적 관심(evangelical concern, evangelical mandate)과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 cultural mandate)의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우선순위에 놓고 난 후 다른 어떤 것이 잘된다 하더라도 교회성장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실증이 중앙교회이다. 와그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 음식, 일자리, 주택, 오락을 요구한다. 또 경제적 안정, 건강 행복한 결혼 생활, 우정과 하나님을 요구한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구사항은 사회기관을 통하거나 정부를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충족이 되고 보충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오직 교회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인간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다.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교회생활의 최우선이 되는 것(the top priority in their church life)으로 용납한다면 교회는 그 성장의 잠재력이 쇠퇴하게 된다.



### 1. 계획적인 목회시도

첫째, 조사계획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취약점이 많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진단 없이 목회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이다. 의사는 진단 없이 처방하지 않고 장군은 정보 없이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자는 진단 없이 목회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은 말씀했으나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느냐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달려있다.<sup>191)</sup>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선언했지만 조직과 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의 일로 남겨 두었다.<sup>192)</sup> 목사의 역할 중에서 왕 같은 직능은 교회조직 구조와 과정에 대한 교역이다. 목사는 예언적 혹은 사제적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만큼 이 왕 같은 목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교인들의 수많은 개인적 목표, 요구 그리고 관심들을 조직된 프로그램과 집단활동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교회 교인들의 삶의 형태, 신앙의 경향, 실태, 선호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각(thinking)은 있어도 연구(study)가 없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타교회의 프로그램을 거의 베껴서 사용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타교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재해석해서 자기 교회에 맞도록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 (learning)은 있어도 훈련이 없다는 점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많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주는 자는 적다. 그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진단이 없거나, 연구가 없거나 훈련이 없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할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필요가 무엇인가. 현재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현재의 필요와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황 해결에 대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해결책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 미래에 대한 현재성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무슨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행동에 대한 변화변수는 얼마나 되는가. 무엇부터 실천해야 하는가. 순차가 정해졌는가. 누가 시행할 것인가. 언제 시행할 것인가. 시행방법은 무엇인가. 조직은 완벽한가. 목표는 세워졌으며 명확한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

191) Alvin, J. Lindgren. 교역 관리론,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4

192) Ibid., 17.

으며 목표설정 및 프로그램 작성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넷째, 목회계획 실시가 필요하다. 계획목회는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sup>193)</sup>

계획목회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먼저 교회로 하여금 그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다. 현상유지가 목회가 아니고 교회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 다음, 교회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전체 교인을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지난날의 목회는 교역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목회개념은 “전체 교인들과 함께 하는 목회”이다. 그리고 목회활동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조정해서 교회가 그 맡은 바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다음 회중의 필요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목회라는 점이다. 계획목회에는 대체적으로 5단계의 과정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다.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교회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알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즉 선명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일이다. 또한 일의 순차(Priority)도 명확히 정해져야 하며 인식화로 과정에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많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하는 일이다. 인식이 되어져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일이다. 모든 계획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사실은 정확해야 하며 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획은 현재에서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생각을 투신하는 과정이므로 가능한 모든 제안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 다음 조직하는 일이다. 조사를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한 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조직하는 일이다. 이 조직은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교역자의 중요한 역할은 수립한 계획을 조직된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하는 일이다. 목사는 항상 어디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려 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확한 보고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계획실천

193) 박근원 외, 예배와 강단 (서울: 양서각, 1980), 14.

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목회개발의 마지막 절차는 평가하는 일이다. 평가기준은 어디까지나 그 사업이 교회의 목적과 선교적 사명의 완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데 두어야 한다.

## 2. 목회실천 프로그램

첫째, 전도전략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적 사역이다.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말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계속되도록 규정된 교회의 사역이며 이 사역은 구체적으로 전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에 있어 전도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전도전략의 첫 단계이다. 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그 방법도 차선이기에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up>194)</sup> 곧 하양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목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하양교회의 목회 속에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일단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신흥도시로의 개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기존 출석교우들이 있다. 이들은 필자의 동역자요, 다음 새 교회의 종자교인이요, 남은 자이며 그루터기이다. 필자는 남은 교우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그들이 성숙한 예수제자가 되기까지 보살피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오직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개시키면서 복음에 의한 ‘오직 믿음’을 확실히 소유함이 급선무임을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빌 2:13) 될 일이다.

곧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칭의가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금생과 내세에 도래하였음을 확신케 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남게 하신 그 사명 곧 구원론적인 기독교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자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194) James Wilson, 전도전략 원리, 이용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9

나) 교구 내에 있는 기성교인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본디 섬겨 오던 본 교회에 충실하도록 독려할 뿐 그들을 마구 유치하려는 비구원론적인 목회의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전도는 교회확장의 수단이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한 바른 목회윤리를 인식하고 있었듯이 이는 사명자의 기본양식이다.

다) 방황하는 어중간한 교인들이나 본 교회에서 낙심한 대로 살아가는 세례교인들이 있다. 특히 도시의 암몬이즘에 지쳐 스스로 절망하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받은 교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을 향한 도시교회의 구원론적인 전도전략은 우선 '오직 말씀'으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배우게 하고 지상 생활에 감사하면서도 내세의 소망이 곧 하늘의 소망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2:26; 히 12:22)에 대한 소망임을 숙지시킴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에 있음을 증거한다. 이때에 그들은 도시의 샬롬의 대리자(agents)로서, 곧 도시의 선교사로서 비전을 발견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각기 서 있는 자리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재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독려하고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지도자를 발탁, 훈련하고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암몬이즘과 인본주의적인 바벨론 도시속에서 살고있는 도시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 무엇보다 중요한 그룹인 불신자에 대한 전도는 다음과 같은 목회신학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시대의 도시목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시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것인가?

A. 주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심은 무엇을 원하심인가 할 때에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집중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멸망할 도시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간절히 외친다는 뜻이다(계 14:6; 18:10, 20). 왜냐하면 불신자로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95)</sup>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며 그 유익으로 오는 구원의 효과, 곧 금생과 내생에 나타나는 유익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칭의와 성화의 교훈을 깊이

195) 롬 5:10; 3:10.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God's judgement seat) 앞에서 목회한다는 사명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며<sup>196)</sup> 도시에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생을 분명히 직면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회복(요 1:12)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영으로 도시의 구령사업에 전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원의 실재는 하나님의 실재(God's reality)이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현존을 도시인들이 체험해야 할 것이다(행 3:6).

B. 누가 전도할 것인가? 전교인들 빠짐 없이 전도자가 되게 한다.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훈련을 받게 하고 특별히 선발한 전도요원은 보다 더 강도 있게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 매주 정기전도일에 파송하여 전도하게 한다.

C.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먼저 개인전도를 한다. 전도의 기본은 개인전도이다. 이는 한 개인이 불신자를 상대하여 1:1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목회자는 개인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팀의 코치<sup>197)</sup>여야 하며 그도 먼저 구령에 불타는 개인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경우<sup>198)</sup> 그와 제자들과 흠어진 사람들의 방법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여기에는 안드레 식<sup>199)</sup>, 루디아 식<sup>200)</sup>, 고넬료 식<sup>201)</sup>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같은 효과가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D. 방문전도이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로도 모두 가능한 것이다. 교회가 어떤 날을 정하고 교구의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이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2인씩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눅 10:1) 이렇게 전도할 때 교회나 개인이나 아래와 같은 유익을 보게 된다.

- a. 수확이 많다.
- b.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 c. 기도회가 왕성하게 된다.
- d. 성도의 교제가 두터워진다.

196) Institution, 3, 2, 1.

197) James Kennedy, 현대전도,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3), 7.

198) 요 3:15.

199) 요 1:40-42.

200) 행 16:14-15

201) 행 10:24

- e. 기다리는 영혼을 찾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
- f. 개인전도를 크게 돕는다.
- g. 모든 신자로 전도의 의욕을 갖게 한다.
- h. 전 교우가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게 한다.
- i.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한다.
- j. 교회가 하나로 뭉친다.<sup>202)</sup>

E. 집중전도가 있다. 잘 훈련된 평신도지도자들을 가정으로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부부단위로 훈련을 받게 한 후, 매주 정기전도일 오후 6시경에 모여 식사하고 기도한 후 전도하고 다시 모여 보고케 한 후 돌아가는 방법이다.

둘째, 교육목회이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edification)이다. 이는 교인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잘 자라가도록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sup>203)</sup> 따라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자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가) 제자훈련은 교육목회 중 으뜸을 차지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역을 인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찾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다듬어 주는 약 6개월간의 훈련과정을 제자훈련 또는 구역장교육이라고 한다. 이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담임목사는 이 프로그램에 전력을 투구한다. 이 훈련은 또한 소그룹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이 훈련의 요체가 된다.<sup>204)</sup> 특히 신앙 경험을 나누는 소그룹 운동이 바람직하다. 교인들의 주거지역은 전 도시에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교회의 작은 분자로서 모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좋다. 속회나 구역예배는 소그룹 모임이다.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교인을 방지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의식을 느끼게 하며 교회활동에 구체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된다. 소그룹은 흩어져 있는 교회의 분신으로서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예배와 봉사, 선교와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소그룹운동은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가장 강력한 교회 핵심조직체요, 성경교육의 학교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선교진지이고, 이웃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다. 인간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는 만남의 장인 소그룹모임

202) 계안식, 한국 전도전략, 8.

203) 벧후 3:18.

204) 마 18:19-20.

은 세상의 정보를 교회에다 제공하는 일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전해주는 정보 매체로서도 사명을 다해야 한다. 도심지 교회의 사활은 소그룹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예수 제자화라는 기치 아래에 소그룹 제자훈련은 현대 사회의 배후에 존재하는 허기증, 소외감, 안정감, 소속감을 원하는 현대인의 깊은 요구도 채워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갖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나)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도시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 중의 하나로서 각종 성경공부반이 있다. 이는 결국 평신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다음의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반: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구원에 확신 없는 자들

새 신자 교육반: 초급입문반, 중급교리반, 고급알곡반

목요 성서연구반: 매주일 실시하되 장년부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기도학교가 있을 수 있다.

도시인의 삶에 있어 기도의 생활은 필수적이다. 이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전쟁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이 기간 동안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생활의 이유는 알지만 그 방법론은 구구하고 제각기 편리한 방법 속에서 혼란만 야기한다. 따라서 열심 있는 기도 속에 바른 기도의 훈련이 가미되면 보다 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도시 속에서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독인이 될 것이다.

## 제 2 절 지역복음화를 위한 중점사업

### 1. 노인대학 운영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이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총체적 대비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960년만 해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9퍼센트에 불과했고 숫자도 72만명 정도였으나 93년에는 5.4퍼센트에 2백 3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01년에는 노령화사회의 기준으로 통하는 전 인구의 7퍼센트 수준에 이르게 되며 2021년에는 13퍼센트를 넘어서 본격적인 노령화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23.5퍼센트(88년), 프랑스 19.1퍼

센트(이하 90년), 일본 17.5퍼센트, 미국 16.8퍼센트, 호주 15.5퍼센트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 의료기관, 노후 휴양시설 등 노인관련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노인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년 후 활동방안 등 노동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도 노인관련 상품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sup>205)</sup>

중앙일보가 지난 9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현대판 고려장」이란 제목의 르포는 우리 사회의 그늘과 복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버려진 노인, 진통제로 통증을 달래며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정처없이 떠도는 치매증 노인.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이 총체적으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런 실태를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초기의 정글자본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다. 지난 60년에 2.9퍼센트이던 65세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현재는 2배 가까운 5.7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2000년에는 6.8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선(先)성장·후(後)복지'정책을 지속한다면 「현대판 고려장」현상도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대책은 '버스표 복지'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고작 내세울 만한 게 노인들에게 버스표를 지급하는 것뿐이라는 뜻에서다. 그나마 별 보탬도 안 되는 이하잡것없는 제도도 낭비란 비난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재벌노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지개념과는 동떨어진 장식적 선심용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의 뿌리가 깊다. 이를 잘 활용해 노인봉양이 큰 경제적 부담이 안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국가는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것만을 떠맡는 식의 2인 3각 대책을 마련한다면 문제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열쇠는 '선(先)성장·후(後)복지'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데 있다. 「현대판 고려장」마을이 있는 한 경제력 세계 11위도, 삶의 질도 한낱 구호나 상징조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sup>206)</sup>

우리 나라는 유교적 전통문화의 영향 속에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존속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사회의 도래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생활구조의 변화와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의학의 발달은 인간 문화생활의 향상과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그 결과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205) 중앙일보, 1994년 6월 16일자.

206) 중앙일보, 1995년 9월 5일자.



의 증가는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960년대부터 서방국가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는 1970년대에 15퍼센트 선이었고 2000년대에는 20퍼센트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7).

이러한 노인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관심은 범 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2년은 “노인의 해”로 다채로운 학술회의와 행사가 있었고 유엔도 1982년 7월 26일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150여 개국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고령화문제 세계대회”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1982년 어버이날 이전에 노인현장을 공포하고 “노인의 해”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단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은 없었던 것 같다. 아직도 교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은 어버이주일을 기하여 반복적으로 기독교행사만 치를 뿐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참여 방안을 다루어 보고 노인을 위한 목회적 차원의 방향을 정립하여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구하며, 전도하며, 교육하고 인도하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노인들의 정력은 쇠퇴하고 육신은 민활하게 움직일 수 없지만 노인은 그 판단력과 풍부한 경험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교회 역시 이제는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노인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착실한 계획을 세우며,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부서를 즉시 마련하여 교회에서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와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교회가 해야 할 참다운 노인 목회에 대처하고자 한다.

#### 가. 노인목회에 대한 제안

교회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레이(Gray)와 모버그(Moberg)는 그들의 책 「The Church and the Older Person」에서 일반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08)

207) 안용식, “노인복지의 전망”, 사회과학 논문집, 제7집.

208) David O. Moberg, The Nature and Needs of Older Adults (Chicago: Moody Press, 1976), 96.

- ① 어떤 노인들은 젊은 교인들로부터 자기들이 축출되었다고 느낀다.
- ② 어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 ③ 어떤 노인들은 옷을 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 ④ 어떤 노인들은 질병과 신체적 허약 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 ⑤ 많은 노인들은 교회 안의 변화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 ⑥ 교회 안에서 노인의 역할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노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의 실정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정당한 실시를 위하여 시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필자는 구체적인 방안보다 먼저 노년부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젊은이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전체 교인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이다

#### (1) 영적 욕구 충족

교회의 주된 기능은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개인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를 도울 수 있다. 목회자는 예배 시의 설교나 가족모임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노인들은 불안정과 무용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의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다.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자아의식과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신학적 준비를 하게 되며,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를 잊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 “죽음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교회가 하여야 할 과업” 중의 하나이다.<sup>209)</sup>

#### (2) 전 교인교육

교회의 교육 과제는 흔히 젊은이 중심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인문제를 모든 교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즉 노인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다 늙을 수밖에 없으니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살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노인공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209) Ibid., 121.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잠 1:7-9). 그러므로 교회는 전 교인을 가르치고(엡 6:1-3)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 (3) 개개인을 돕는 프로그램

교회의 프로그램은 모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히 노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돕고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며 그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케 하고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인격적 적응을 하도록 돕는다.<sup>210)</sup>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애요소가 생겼을 때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sup>211)</sup> 또한 노인들이 건강할 때에도 그들의 유용성을 자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즉 교회 학교 교사나 심방인 혹은 도서실 직원 등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주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와 그룹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노인들이 젊었을 때의 활동에 대한 회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sup>212)</sup>

### (5) 지속적인 시설유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하여 노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획과 배려가 필요하다. 노년부실은 친교의 장소로 활용되며, 성경과 기도의 장소가 되고, 영적 경노당화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을 위하여 접대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젊은이들에게 노인공대를 보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무의탁노인을 위하여 기독교양로원 등의 복지시설 마련에도 보다 친밀한 계획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210) Ibid., 127.

211) Ibid., 128.

212) Ibid., 129.

현대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이해와 그들을 위한 교육방안의 마련은 우리에게 황무지와 같은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노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효자상에서 그치지 말고, 기독교 교육의 광역화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교회학교에 노년부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교육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직분을 수행하도록 교회에서 헌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노년부교육을 위해 목회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며 이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노년부 커리큘럼은 노인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213)

#### 나. 교회의 활동방안

전국교회 1200만 성도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만 철저히 가진다면 교회는 가장 효과적으로 노인문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오락보다 우선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며, 영적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현 실정에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란 사회의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선진국 이상으로 보다 이상적이며 근본적으로 즐겁고 보람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 길은 단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들이다. 봉사의 생활로 일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것을 본받아 행하라(요 13:14-15)고 가르치셨다. 남을 돕는 봉사의 삶은 그리스도의 근본정신이다. 참된 기쁨은 섬기는 자에게 있다(엡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3)”는 말씀을 실천할 때 노인에 대한 봉사는 가능한 것이다.

213) Ibid., 66.

교회 안의 모든 신자는 한 가족이며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대할 때 자기 부모님께 하듯이 친절한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어버이주일은 특별한 행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래와 음식과 선물로 즐겁게 해드린다. 교회는 어떤 행사 때라도 노인들을 우대하여 모신다. 집안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던 노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마음이 평안하고 웃음의 꽃이 피고 정다운 대화가 오간다. 노인들은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니다. 교회 봉사에 직접 동참하므로 써 즐거움을 가진다.

#### 다. 주일학교 노년부

교회학교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장년부 등으로 세분되어 있지만 노년부는 없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움과 즐거움을 찾고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년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첫째, 교회학교에서 노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부조화를 해소시키고, 고부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젊은이들을 이해하도록 하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노인들로 교육할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이해와 인내와 관용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가정을 평화롭고 다정하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교회학교 노년부가 설치되면 자연히 노인 단체가 구성되어 단체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친교하고, 그 안에서 힘을 합하여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

성경을 가르쳐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할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그 영혼이 하늘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노인들이 성경을 배우면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친다. 디모데의 외조모 루이스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외손자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하여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했다. 신구약 성경의 집필자 40여명은 거의 노인들이다. 특히 신약성경 중에 바울서신, 공동서신이 모두 신앙의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노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을까? 교회가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자.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루 빨리 교회마다 노년부를 설치하여 다른 청소년부에 못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물질적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 라. 하양교회의 노인대학 사역

사실 지금까지 개교회 내에서 별도의 노인프로그램이 없었다. 한국적 전통인 회갑이나 고희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거나 축하잔치를 교회에서 진행한 경우는 간혹 있어도 체계적인 노인사역은 전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하양교회는 2000년부터 노인대학을 상설, 운영키로 하였다.

### (1) 목적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일환으로 경로대학을 설립하여 경산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노년기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경로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지역복음화에 햇불이 되도록 한다.<sup>214)</sup>

### (2) 조직구성

경로대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형국 목사를 학장으로 하고, 학장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학생회로 전체 운영조직을 구성한다.<sup>215)</sup>

지역사회 운영위원회 : 원로장로 현영해 외 지역사회 자원인사 7-10명

경로대학학장 : 김형국

운영위원회 : 교회 각 기관대표 2인 이내,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위

원장 : 도무수

운영간사 : 노인대학 운영관련 1인, 교과과정 기획관련 1인: 이현주(사무실직원)

학생회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 (3) 기본교육 과정

경로대학의 기본교육 과정은 주 1회 활동을 기본으로 강의하되 토의학습, 놀이, 산업시찰, 효도관광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구성한다.<sup>216)</sup>

214) 하양교회 경로대학운영위원회, 하양교회 경로대학 운영방안 (1999. 1. 14), 1.

215) Ibid., 2.

216) Ibid., 3.

#### (4) 기본학습 유형

경로대학의 기본 학습유형은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월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한다.

개학식, 복지관 중심활동, 봉사활동, 산업문화 시찰, 기타 등으로 구성한다.<sup>217)</sup>

#### (5) 주요 학습내용

##### (가) 강의주제의 예

노년기의 건강관리, 손자들의 살아갈 미래세계, 대화방법, 한국인의 사회예절, 사회변화, 한국사, 문학의 세계, 새로운 세대의 특징, 한국의 미, 세계 속의 세대의 특징, 삶과 죽음.

##### (나) 특별활동의 예

유아들의 예절 교육, 산업시찰, 나의 자서전 만들기, 내가 바라는 경산지역의 모습 그리기, 노래와 춤 배우기, 시 외우기, 속담과 고사성어 익히기, 서예지도.

##### (다) 특별행사

지역사회 봉사, 산업시찰, 지역사회 내의 사업장시찰, 문화시설 관람, 가족초청 발표회, 효도관광, 즐거운 식사행사.<sup>218)</sup>

#### ① 회갑연 , 고희연

사실 지금까지 개척교회 내에서 별도의 노인프로그램이 없었다. 특히 한국적 전통인 회갑이나 고희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거나 축하잔치를 교회에서 진행한 경우는 전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초기는 우리나라는 전통적 유교사회요, 가부장적 권위가 확고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다. 젊은이들 중에 노인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4/1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교회는 뭔가 해이해져 가는 효사상을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새롭게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하는 하양경로 대학이 정착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거나 전후사정이 여의치 못한 교회내외의 어른들을 모시고 매월 준비해서 각 기관이 협조를 얻어 특별행사를 할 수 있다. 예배 후에는 기관에서 준비한 잔치를 가지든지 아니면 효도관광을 준비해서 보

217) Ibid., 4.

218) Ibid., 5.

내드리든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한국사회도 선진국화되면서 점점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동시에 교회 내에 노년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우리는 보다 더 연구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구원하고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점점 전력해야 하겠다.

## ②장례식

어거스틴은 「고백론」 1권 6장에서, 인간은 출산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으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각자의 이승의 종결점인 죽음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죽음에로의 존재<sup>219)</sup>라는 일반적인 철학적 이해가 보편적이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웨버의 견해에 의하면 첫째, 죽음은 착각일 뿐 삶의 연장이다. 둘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냉혹적 사실이다. 셋째, 죽음은 삶의 설명이며 벌받음이다. 넷째, 죽음은 생명의 단말마요, 패배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례식 후에 많은 가족들이 예수를 새로 믿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식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 전도서 7장에서도 장례식에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와서 헌신적으로 돕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장례식 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귀중한 복음전도의 기회인 장례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내의 다른 프로그램처럼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어 습관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목회 사역차원에서 본다면 장례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양교회는 이를 위해 특별히 장례위원회를 만들어 임종예배에서부터 다음해 추도예배까지 세심하게 섬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매년 선정한다.

## 장례위원회 구성

219) 정달용, “철학으로 본 죽음”, 사목 70호, 1980년 7월호, 18.



위원장: 장로

부위원장: 안수집사

장례예배부: 집사3인

장례봉사부: 권사1인, 여전도회

운구위원: 장립집사 일동

\* 매년임명

1) 장례식 순서

장례식은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 예배를 통해 유족들이나 조객들에게 신앙의 각성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고인을 위한 예식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족들과 조객들을 위한 예식이라고도 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평소에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사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는 인생의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든다.220)

이러한 예배로의 장례예식에 대한 기독교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첫째 재래의 전통은 장례일을 짝수는 피하고 홀수인 3, 5, 7일로 정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개 3일장에 국한할 경우 주일이 겹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2일장이나 4일장도 무방하다. 둘째, 장례식의 장소는 할 수 있으면 교회로 하나 자택이나 병원이라도 좋다. 셋째, 식순에 참가할 사람을 상주와 상의하여 미리 알아두며 순서지를 마련하여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넷째, 주례자는 경건하게 성의를 다하여 직업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장례예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고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유족들이 가정적 형편을 고려하여, 고인이 애송하던 성구와 찬송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더욱 뜻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예식서221)에 의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그곳이 병원이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목사는 곧 그 가족들에게 가야 한다. 간략한 위로의 말로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성경을 읽고 짧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장례식주례의 청탁을

220) 임택진, 기독교 가정의례 지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5), 49.

221) 이정희 편, 목회예식서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58-60.

받게 정중한 태도로 수락하고 장례식계획을 세우도록 상의할 시간을 약속한다. 둘째, 목사는 약속된 시간에 장례식 예배 계획을 위해서 상가로 간다. 장례와 일시는 유가족들과 목사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목사는 교회의 규례나 기독교교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가족들의 요청을 존중하며 그 지방의 관습이나 전통을 참작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장례식예배의 근본목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돕는데 있다. 넷째, 장례식예배는 사람들이 삶의 실재에 직면하는 것처럼 죽음의 실재에 직면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다섯째, 장례식예배에서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기독교신앙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나타낼 기회를 가진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특히 부활의 능력과 기독교인의 위락의미를 설명해야만 한다. 여섯째, 목사는 고인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곱째, 시신을 보여주는 것은 죽음과 이별과 상실의 실재를 받아드리는 것을 뜻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례식 전에 행해져야 한다. 보통은 입관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모습을 보도록 한다. 장례식예배 때에 관의 뚜껑을 달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생존자와 고인은 이제 구별된 신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의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째, 고인의 약력을 장례식 예배순서에 넣는 것은 무방하나 지나친 찬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인의 약력을 꼭 소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아홉째, 장례식예배는 교회가 유가족을 돌보는 목회적 관심의 마지막이 아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자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후원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그 유가족을 방문해야 한다. 열째, 교회와 교회 내에 각 단체에서는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봉사로서 그들을 격려해야 하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뜻깊은 유대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장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시행할 때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며 둘째, 유가족과 친지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죽음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돌이켜보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로 삼게 되며 셋째, 교우들에게는 성도간의 위로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것을 일깨우며(고전 12:26-27),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증거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가정문제 상담

교회지도자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순간 - 출생, 결혼, 투병, 죽음 등 - 에 교회지도자들은 친밀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러한 기회에 민감할 때 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특별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sup>222)</sup>

결혼하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혼전상담이 있을 때가 가장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혼전교육(premarital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로 준비교육 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혼전상담(premarital counseling)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의사결정이나 대화의 장벽과 같은 결혼 전의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또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가정상담이나 이혼의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상대로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정상담이 중요한 목표이다. 상담의 기능은 크게 예방사역이 기능과, 치유의 기능이 있다. 특히 목회자가 가정사역에 눈을 뜨게 될 때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상담에 힘쓰게 된다. 심리학자 안토니오 플로리오(Antonio Florio)는 예방사역을 할 수 있다는 목사의 선택적 위치 때문에 목사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목사들이 상담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sup>223)</sup>

상담의 최종목표는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sup>224)</sup>고 할 때, 내담자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은 예방의 기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정상담은 교회 내의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결혼준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깨어진 가정과 부적합한 부모상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결혼 후의 적응에 대한 지침이나 기술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부모를 떠난다. 직업을 위해서 몇 년을 허비하고 때론 운동경기를 위해서 수백 시간을 연습하는 것에 비하면,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중대사를 위해 서너 차례의 상담과 거기에 따른 공부 정도로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 같다. 그러므로 본 목회자는 하양교회의 지역복음화를 위한 가정사역을 위해서 정규적인 가정상담 프로그램과 시간을 준비해서 예방과 치유에 힘쓴다.

222) Charles M. Sell, 가정사역,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35.

223) Ibid., 236.

224) Ibid., 237.



## 제 7 장 결 론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이다. 이는 곧 한국의 도시화가 동시대의 선교적 도전이 되었고 더이상 간과 할 수 없는 도시목회적 의제로 제기 되었다는 뜻이다. 곧 도시화 현상 속에서 교회는 도시와 도시인들을 위한 목회의 도전을 받고 있다. 고로 도시목회는 과연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시화, 특히 신흥 개발지역에 있어서 제반 도시문제를 당면한 교회는 어떻게 성경적인 도시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특별히 필자는 현재 신도시의 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경산시 하양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에 주어진 목회적 상황 앞에서 도시목회의 정립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는 본 논문이 종내 추구하는 과제였다. 그것은 바로 도시화되는 와중에서 하양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제 어떠한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도시화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목회신학의 정립과 그에 준한 도시목회적 방안들이었다.

도시목회는 도시확산의 시대에 있어서 분명한 목회적 요구이다. 도시는 날로 정체성과 소속감이 상실되고 온갖 아노미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며 금전 제일주의 경제의 가치관이 팽배될 것이므로 도시목회자는 도시인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세계선교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여 또한 도시구원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인비 교수는 “미래는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전세계는 도시화하여 간다. 도시화현상은 교회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어 교회의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판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인구동향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동일한 현상이다. 1985년 11월 1일 우리 나라 인구 4천 46만 6천 5

백 77명으로 이중 65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요도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 9,645,000, 부산 3,516,768, 대구 2,030,549, 인천 1,387,475으로 서울인구는 총인구의 23.8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인구변화, 즉 도시집중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었다. 한국교회는 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농촌교회는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서울은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성한 지역이다. 도시화현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끼치었다. 일본의 경우 도시화현상으로 오히려 불교의 신도는 도시나 시골에서 모두 쇠퇴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와는 달리 일본 사회는 도시화와 더불어 종교심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25)</sup> 오늘날 도시화현상으로 도시교회 성장은 새로운 연구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학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Urban mission」이란 잡지발행과 도시선교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신학교들이 도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풀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과 그 영향으로 세계 주요도시별 교회성장 연구가 활발하다. 이유는 도시는 도시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교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교회 성장론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도시화는 신학과 교회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과격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써 이것은 결국 도시선교의 문제이며 도시교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19세기에 이미 서구교회는 이미 이 문제에 직면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르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약하였고 처방술이 없었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교회가 도시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과격신학이 더욱 교회와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총 6장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성경적 도시목회론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성경과 도시로서 구약에서의 도시, 신약에서의 도시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도시화와 선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과 근세교회, 현대교회 등을 살펴본 다음 한국교회와 도시사회 봉사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현대의 도시화와 지역교회의 선교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도시화와 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고찰로서 도시화의 경향과 세계, 도시화에 따른 목회의 현황 등을

225) NHK 여론조사부 편, 일본인의 종교의식, 64-66.

살핀 다음, 도시화의 현상과 목회의 문제점으로 경제적인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 문화적인 문제점과 처방 목회적인 문제점과 처방 등을 살펴본다. 하양교회의 도시지역 사회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살펴보았다.

또 신흥도시 주거지역의 현황을 살폈는데 신흥 주거지역의 개념과 신흥 주거지역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도시화와 선교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도시화와 선교방법론과 지역교회의 도시선교론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지역 사회의 선교적 방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연구로서 선교와 봉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과 선교적 봉사의 성서적, 신학적 개념을 살펴본 다음 선교적 봉사방법으로서는 선교적 봉사의 방법과 목회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와 복음화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하양교회의 지역사회 선교적 봉사로서 하양교회 주변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하양지역의 현황과 하양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하양교회의 목회분석에서는 교역자문제와 평신도지도자의 부족문제, 그리고 상호신뢰감 상실과 친교의 결핍과, 성령의 결핍문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부족 문제들을 교회성장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6장에서는 하양교회의 선교방법으로서 교회의 갱신을 위해 계획적인 목회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고, 목회실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으로서 하양교회의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노인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유를 통하여 본 논문의 강조점을 실었다. 하양교회는 21세기 교회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선교방안으로서 노인사역에 방향을 잡아 이를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보았다.

하양교회는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경산지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교회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도시화에 따른 병리현상을 직시하고 이를 치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다. 가장 큰 병리 중의 하나를 전통적인 효에 대한 가치관이 실종되고 노인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경산지역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이를 교회의 특화된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필자의 이 작은 연구가 하양교회의 목회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동역자들에게 작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연구자에 의해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국내서적

- 장대현. 도시지리학. 서울: 교학사, 1981.
- 강용원. 죽음에 대한 목회. 고려신학대학 교회문제연구소, 1979.
- 경제기획원. 인구부분계획안, 제5차 5개년 경제개발사업계획, 1981.
- 곽안련. 목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 권태환. 사회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김득용. 현대 목회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6.
- 김대한. 도시행정론. 서울: 범문사, 1976.
-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교회 신행협회, 1985.
- 김선건. 새사회학통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노용희. 신도시개발론. 서울: 박영사, 1973.
- 대한노인회. 노인과 사회. 서울: 아산 복지사업 재단, 1983.
- 명성훈. 교회성장연구소 연구보고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1997.
- 박근원 외. 예배와 장단. 서울: 양서각, 1980.
- 박양우. "과천 신도시의 의의와 1980년대 도시정책개발을 위한 소고." 도시문제, 1981년 10월호.
-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 박재간. 고령자 교과서. 서울: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1980.
- 박재간, 임준식.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 박형룡. 사도행전 주해. 서울 : 성광문화사, 1984.
- 백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변선환. 오늘의 선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감리회, 1985.
- 부광석. 학생과 사회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석천 이찬 박사 회갑기념 논집.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 신성종. 신약총론.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 신유호. "노인목회 연구."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아산 사회복지 재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 사회복지 재단, 1983.
- , 노인복지 편람. 서울: 아산 사회복지 재단, 1985.
- 안용식. 노인복지의 전망.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0.
- 오갑환. 사회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74.
-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서울: 총회사업부, 1983.
- 유영진, 하인호, "노인복지 연구에 관한 논문." 한양대학교 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1979.
- 이건영. "도시질서 운동의 정착화." 새마을 연구논문집. 경기도: 신성인쇄사, 1980.
- 이규환. 지역사회의 개발과 이해.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77.
- 이상근.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교육부, 1981.
- 이원규, 송실대학교 제10회 기독교문화 및 신학 세미나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그 대책"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97
- 이윤숙. 노인과 복지 - 노년기의 보건의료. 서울: 대한노인회, 1982.
-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92.
- 이정희 편, 목회예식서.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 이주영. 현대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이중식. 노인과 복지정책;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 사회복지 재단, 1983.
- 이종익. 도시론. 서울: 범문사, 1984.
- 임택진, 기독교 가정의례 지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5.
- 전호진.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 한국 교회와 선교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정재식. "현대문화와 종교의 변동"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82.
- 정진경, 신학과 교회,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조종남.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로잔 세계복음화한국위원회. 서울: IVP, 1991.
-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재, 1984.
- 최호준. "도시 빈민의 현황과 그 문제" 민중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사업부, 1983.
- 하양교회, 하양교회 경로대학 운영방안 (1999. 1. 14).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 한국교회 10주년 종합 조사연구서.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노인문제 연구보고서 제5집. 1983.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문화인류학. 서울: 한국 방송통신 대학, 1985.

한원택.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76.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IVP, 1993.

## 2. 번역서적

Alvin, J. Lindgren. 교역 관리론,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Baldrige, J. Victor. 비평학적 접근으로 본 사회: 갈등과 변화. 이효재, 장하신 역.  
서울: 경문사, 1980.

Barcelly, William. 로마서 주석. 정혁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Bavinck, Herman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5.

Boer, Harry R. 단편 초대교회사. 백성호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6.

Breese, Gerald.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한항택 역. 서울: 법문사, 1976.

Cox, Harvey. 현대사회로 돌아온 종교. 이종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6.

Diehper, M. 도시교회 목회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Jacques Ellul. 도시의 의미. 최홍숙 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2.

Fickett, Harold 교회성장의 열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예수선교문서선교회, 1979.

Glasser, Arthur and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고  
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Greenway, Roger.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론, 1998.

Harrison, E. F.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자.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Haus, Peter Beyer. Mission: Which Way?, 김남식 역.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5

Houton, Sydney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반사, 1991.

Kane, Herbert. 기독교 세계 선교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Kennedy, James. 현대전도.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3.

Linthicum, Robert C. 하나님의 도시, 사탄의 도시.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3.

McGavran, Donald.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Mackim, Donald. ed. 찰빈의 신학서론. 한국 찰빈학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1.

Moyer, E. S. 인물중심의 교회사. 박안전,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Ramsey, W. 사도바울. 박우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Scott, W.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Sell, Charles M. 가정사역,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Wagner, Peter.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Wilson, James. 전도전략 원리. 이용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3. 외국서적

- Bassham, Roder C. Mission Theology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0.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J. H. Kok, 1928.
- Bryan R. Wilson, Religion in Secular Society. London: C. A. Watt, 1966.
- Buttrick, George Arthur. et al.,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Abindon Press, 1962
- Conn, Harvie. ed., Planting and Growing Urban Church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 Davis, K. "The Urbanization of the Human Population." In Dennis Flargam et al. eds. Cities New York: Alfred A Knopf, 1965.
- Goodall, Norman. Mission Under the Cross London: Edin House, 1953.
- Hosetitz, B. F. "Generative and Parasitic Cities", Economic Development Culture Change, 3 (April, 1955)
-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 Latourtte, K.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onity Vol. 6.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0.
- Moberg, David. The Nature and Needs of Older Adults. Chicago: Moody Press, 1976.
- Park, E. Robert. The City as a Social Laboratory. New York: Mcgraw Hill, 1970.
- Popone, D. Democracy and Communit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6.
- Redifield, Robert and Milton, Singer. "The Cultural Role of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 (October, 1954) .

- Sirjamaki, J. Urban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72.
- Pirenne, Henri. Belgian Democracy: Its Early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15.
- Vicedom, George F. The Mission of God. St. Louis: Concordia, 1965.
- Wilson, Bryan R. Religion in Secular Society. London: C. A. Watt, 1966.

VITA of  
HYUNG KOOK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ayang Presbyterian Church, Gyung Buk,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September, 28. 1955.

Birthplace: Gyungsang Bukdo, Korea

Marital & Family Status : Married to Park, Myung Sook

With two Children, Eun Gue and Eun Jin

Home Address : # 33, Kum Rak 2-ri, Hayang-eup Gyungsan-city  
Gyungbuk, Korea

Phone : (Home) 053-851-1004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Hapdong)

Ordained : Sept. 4. 1985.

Education

Th. B : Feb. 1980. Tae Shin Christian University

M. Div. : Feb. 1984. Chong Shin Theologies Seminary

M. A. : Feb. 1995. Tae Gu University, Education Graduated School

D. Min. : Jun. 2000.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inisterial Experience

Feb. 1988 to present : Senior Pastor, Hayang Presbyterian Church.

Jan, 1986 to Feb. 1988 : Assistant Pastor, Hayang Presbyterian Church.

Jan, 1985 to Dec. 1985 : Assistant Pastor, Susan Presbyterian Church.

Teaching Experience

Mar, 1999 to present : Adjunct, Tae Shin Christian University

Mar, 1999 to present : Adjunct, Gyungbuk Foreign School.

Mar, 1987 to Feb. 1999 : Chaplain, Hayang Woman Middle and High School.